



나라를 뒤집은 최순실 모녀의 국정 농간, 그것은 고삐가 풀린 말의 폭주였다.

600명 大記者들이 대통령께 말 합니다

馬 말발굽에 짓밟혔다
言 말이 할말을 잃었다
末 말년의 임기 말끔히

진실?

원로기자들의 매거진 ‘大韓言論’은 10월 26일 긴급편집회의를 열고 11월호 지면계획을 급히 바꿨습니다.

경악과 분노를 잠시 접어 두고 난무하는 의혹의 늪에서 먼저 진실을 가려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 회원들 모두 한결 같이 청와대를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진실 만이 <최순실 게이트>를 풀수 있다”.

편집팀은 고민 했습니다. 조유의 사태를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 조유의 사건이니 편집도 조유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제목 만의 완성기 편집’을 시도했습니다.

〈편집자〉

〈긴급 특집 2·3·4·5면〉

‘순실’에게 업혔나, 순실을 업었나

고바우 만평



1958. 1.23 筆禍를 일으킨 만화

김성환 (본회 편집위원)

失笑의 시대

만화 같은 뒷골목 권력 요지경
고바우 · 나대로 THE PEN을 들다



오늘의 나대로



이흥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멈춰 선 대한민국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미증유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려 말기의 신돈, 제정 러시아 말기의 라스푸틴에 비유하는 해괴한 풍설까지 떠돈다.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플래카드가 거리에 나붙고, 이와 관련된 촛불 시위도 시작되고 있다.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큰 데 따른 사회적 패닉 상태로 여겨지기는 하나, 이런 과정을 거쳐 진정돼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폭발로 가는 과정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직위가 위대한 것은 천하의 인재를 등용시켜 최상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를 ‘뜬보잡’의 여인에게 맡겨 휘둘린 것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일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리지도 않을 나라이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등 총체적으로 위기상황

이다. 지금의 혼란이 조기 수습돼야 할 이유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보다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일은 더 진실되게 사과해야 하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조기에 단행해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리민복 차원에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야 한다. 효과는 미심쩍어도 특검을 조기에 가동시켜 성난 민심을 진정시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행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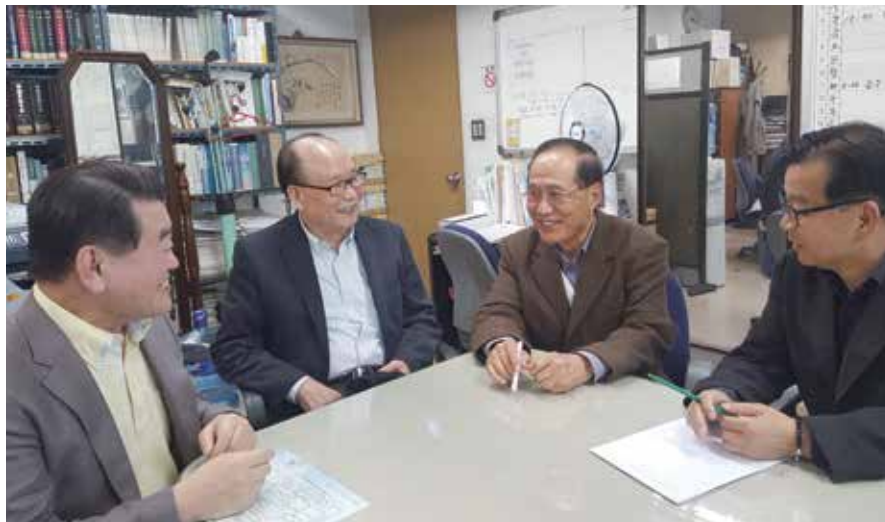
대통령은 개헌의 추진력을 잃었으므로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은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므로 그런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 이것이 대한 언론이 마련한 원로 언론인 긴급 좌담의 결론이다.

긴급 좌담

국정 농단 해법을 찾는다

“

국민의 분노는 보수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절망이자 개탄입니다.



“특검과 구국 중립 내각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를 조기 수습해야 한다” 고 말하는 좌담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이병대 회장, 이덕주 회우, 윤기병 회우, 임종건 주필.

현행 헌법으로는 누가 돼도 바람직한 대통령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체제가 권력분산형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되어도 불행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

지금은 국정 비상사태, 정파 떠나 시급히 지혜 모아야

▲사회 = 먼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부터 진단해 주시지요.

▲이덕주 = 보수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을 전폭 지지해서 당선시킨 것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원칙이 너무 무참하게 깨진 것에 대한 절망이자 개탄이라고 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 이틀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병 = 박 대통령의 소통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심리학에서 외톨이의 원인을 소통범위가 적은 탓이라고 설명하듯, 박 대통령은 일반적인 소통이 없이 최태민 씨에서 그의 딸인 최순실 씨로 이어지는 40년 교분에 너무 의존한 탓으로 보입니다.

▲사회 = 박 대통령의 불통문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거국 중립내각 검토를...

취임 이후 줄곧 제기됐던 문제이죠. 그렇게 모두가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어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최순실 사건으로 그 수수께끼가 풀린 셈인가요?

▲이병대 = 박 대통령이 어머니 작고 후 나타난 최태민 씨에게 심리적으로 빠져 있다가 최 씨가 죽은 후 딸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도 최면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지요. 어느 보도를 보니 동생 박지만 씨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정상적인 가정 아니잖습니까. 길고 긴 밤을 혼자 새우는 겁

니다. 소통할 상대가 없으니 자신의 결함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아집이 생기고 자신의 도그마에 빠져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게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 박 대통령의 공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병 = 사람을 쓸 때 적재적소보다 가까운 사람 위주로 쓴다는 느낌이었죠.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서부터 나머지 인사들도 국회의원 때 연분이 있는 사람 위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불

통의 원인이 된 거죠.

▲이덕주 =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죠. 최순실 씨가 인사정책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죠.

▲사회 = 청와대 문서유출은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직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결정적 증거로 보이는데요.

▲윤기병 = 청와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외부 발설이나 문서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휴지로 만든 직무유기죠.

▲이덕주 = 박 대통령이 대(對)국민 사과문에서 “최순실 씨로부터 도

救國내각이 나서라

2면에서 이어집니다

움반았다"고 한 것은 문서 유출을 자신이 시켰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죠. 문제는 연설문 외에 각종 인사 안보 외교 등 국정전반 걸쳐 중요 문서들이 흘러나갔다는 점이지요.

▲이병대 = 최순실 씨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문서가 특정인에게 넘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의견청취와 기밀유출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윤기병 =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잘 안 지키는 것을 보고 밑에서도 따라서 안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부속실 직원이 최순실 씨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본 비서관이라면 최씨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 줄 수 있을까요. 모두 대통령의 책임인 겁니다.

▲이덕주 = 대통령 지시로 움직이는 게 비서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자의로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의 책임인 것은 명백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만 봐도 청와대가 중심 역할을 한 게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실무책임자를 맡았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도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병대 = 두 재단의 출범도 스포츠를 융성케하고 한국의 상품에다 문화를 입혀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취지였으므로 매우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을 재단의 수혜자로 만들고 모금에도 관계한 듯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좋게 시작했더라도 나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덕주 = 두 재단이 하려던 사업은 프랑스에서 하고 있던 한식보급 사업처럼 이미 다른 재단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미르와 K스포츠가 치고 들어와 깨버렸다는 거죠.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도 되는 거잖아요. 최씨 측에서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사회 = 미르재단은 작년 말, K스포츠재단은 올해 초 만들어졌는데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보좌진이 꾸러지기 전의 일이라며 그 후로는 끝났다고 했는데 최씨는 그때 이후로 이권사업을 본격화한 셈이지요.

▲이덕주 = 보좌진 구성 후에 끝났다는 것은 태블릿 파일에 나온 것만 그렇다는 얘기겠죠.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는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사회 = 2014년 최씨의 남편 정윤희 문건사건이 터졌을 때 권력형

비리의 뇌관 하나가 제거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폭탄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정윤희 사건을 겪고서도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박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무개념이 미르, K스포츠 비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윤기병 = 그것이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겠죠. 취임 후 1년 남짓이 아니라 계속된 관계였다고 말해야죠.

▲이덕주 = 정윤희 사건 때 청와대 근무했던 박관천 경위가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라고 했었지요. 그때는 긴가민가했던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윤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희가 최순실과 이혼한 것도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정윤희의 관계를 끊게 한 때문이라고 했더군요. 박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뜻을 어기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끌어안고 있는 것도 최순실 때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사회 = 우 수석의 거취는 이 사태의 해결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 말

만 기다리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진실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서는 사태가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덕주 = 박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아 반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고 자신을 망치려는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과 대통령의 인식이 충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입니다. 언론의 과열보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공과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종편의 하나인 jtbc가 문서유출에 관한 특종을 했는데 시중에선 검찰도 못한 일을 언론이 해냈다며 "종편이 모처럼 큰 일 한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덕주 = 그 파일이 검찰 손에 들어갔으면 문혔을 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를 했는데 여·아가 합의한 특검에 선수를 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재단이나 우 수석 사건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로 미루어 검찰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지지 않죠.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몇 개월 지나고 1임기 1년짜리 대통령을 뽑고 다시 19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여·아가 특검과 거국 내각구성에 중지를 모아 해결의 가닥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덕주 = 청와대가 저지른 일이나 해결의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우나 고우나 정치인들이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윤기병 = 전례에 비추어 효용성이 의심이 됩니다만 특검 외에 여·아 간에 협의기구를 가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병대 = 특검을 한다 해도 100억원 가까이 쓰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처럼 될 것입니다. 특검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며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여·아 간 논란으로 부지하세월일 겁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해야만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이덕주 = 특검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 하나라도 밝히면 효과가 있는 거겠죠.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뭔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특검의 효용성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아합의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정치적 해결로 볼 수 있겠지요. 그걸 통해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덕주 = 현행 헌법으로는 누가 돼도 바람직한 대통령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이 도로아미타불된 느낌이지만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체제가 권력분산형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되어도 불행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윤기병 = 박 대통령의 실패를 오히려 개헌의 동력으로 삼아야겠군요.

▲사회 =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좌담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병 대
본회 회장



이 덕 주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윤 기 병
본회 회우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사회 : 임 종 건
본회 주필
전 서울경제 사장

◆ 일시 : 2016. 10. 27

◆ 장소 : 대한언론인회 회의실

◆ 사진 :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자랑스런 5천년 역사 먹칠 안 되게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자

씀을 해주십시오.

▲이덕주 = 만시지탄이지만 수석들과 문고리 3인방의 사표가 수리됐군요. 새누리당의 책임자들도 책임을 져야겠죠.

▲이병대 = 최순실 게이트가 전 대미문의 사건이고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만 언론이 너무 과열되어서 혼란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종편도 불철주야 이 주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냐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윤기병 = 박 대통령이 수사결과

▲윤기병 = 청와대가 다 벗어 놔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병대 =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아가 이 사태를 정권쟁탈 목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치인들은 내년 12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눈 앞의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 = 대통령이 자진 하야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기병 = 그러면 일이 보통 복잡

그를 모르는 이도 없지만 아는 이도 없다

한때 ‘한국의 대처’라 불릴 만큼, 강직하고 신념에 차있는 여성 대통령. 그는 왜 국가의 수반이란 자리에 까지 올랐으면서도 최순실이란 복잡한 사람과의 사연(私緣)을 끊지 못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국가의 근간을 넘나드는 방종한 행위에 집착하고 관대했을까.

최태민-최순실-정유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인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가 지금껏 구축해온 원칙주의자의 이미지는, 왜 그 인연 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져 있었는가. 대중은 그 풀길 없는 미스터리의 안쪽을 기웃거리려 보려 하지만, 부질없는 추론과 장황한 상상력과 편협과 착시가 빚어낸 과장법만이 춤출 뿐이다.

최근의 끓어오르는 소음 속에서, 최태민 일가의 소수종교가 대통령의 이성을 마비시켰을 거라는 황당한 추론까지 극성이다. 오래된 표현을 빌리면, 박근혜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박근혜를 아는 사람도 없다.

기자 또한 그런 곁팔기의 하나를 추가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분석의 틀은 갖추는 미덕을 지니려 한다. 왜냐 하면 국정(의 마비) 사태까지 이르른 문제들이 ‘대통령의 무엇’에서 나왔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최순실 문제’가 빚어지게 된 대통령의 문제는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배신 트라우마, 둘째는 확증편향, 셋째는 고아 콤플렉스이다.

(*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수십년에 걸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지라 나이와 직함에 따른 호칭 구분으로 문장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 대상을 보다 객관화하는 차원에서, B라는 이니셜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1. 배신 트라우마(perfidy trauma)

조선 후반기의 지식인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려낸 건, 그를 추앙하고 지지하던 수많은 ‘추사파’들이 정치적 사형선고인 제주 귀양 이후에 일시에 돌아선 뒤 그의 내면에 찾아든 건달 수 없는 추위 때문이었다. 세한도(歲寒圖)란 뜻은 ‘가장 추운 날의 그림’이란 의미다. 추사는 여름에 펄펄 끓는 고독 속에서 한 제자의 반가운 책선물을 받고, 이 와들와들 영혼이 떨리는 그림을 그려냈다고 한다. 그때 그에게 닥친 최대의 문제는, 수많은 배신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처리하는 마음관리였을 것이다.

1980년 10월 아버지를 잃은 B는, 부모를 모두 총격에 잃은 충격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전두환 신군부의 ‘박정희 지우기’ 정국을 대면해야 했다. 헌법에서 5.16 혁명정신이 지워졌고, 박정희 시대는 부정부패의 시대로 규정되었다. 박정희의 2인자였던 김종필마저 전 시대 비판에 합류



“자기를 은혜로이 돌보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하여 총을 겨눌지, 욕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영웅시되는 사회는 도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시인, 블로거 1세대, 팔로어 수백만 명. 아시아경제에 ‘권력 無常’ 시리즈 연재. 권력의 막후를 파헤친 심층취재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편집상 10회 연속 수상. 저서, ‘나는 조선의 창구다’ ‘옛詩속에 숨은 인문학’ 등 다수. 현재 아시아경제 디지털 파트를 맡아 디지로그의 신세계를 펼치고 있다.

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박정희 추도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B는 이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한다.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일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통곡하며 박 대통령을 영결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 동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장을 지낸 분에 대한 추도 행사 한번 없었고 매도 일색의 세월을 보

내왔다. 유신 시절에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앉았던 정치인들 중에는 유신을 죄악시키는 요즘의 풍토 때문 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때 반대를 했다. 내가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를 할 수 있었는겠느냐’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자신이 진실로 나쁜 체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때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았었는가를 묻고 싶다.”(B, 1989년 1월, 여성동아)

B는 김영삼 정부 말기의 외환위기로 ‘박정희 향수’가 일어났을 때,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그때 그는 김종필의 자민련에 가지 않았다. 다른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1980년 이후 배신의 정치에 대한 나름의 응답이었다. 당시 김종필이 “박정희 업적을 승계하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한다. “1980년에 들어와 아버님의 업적이 왜곡되었을 때 그 당시 침묵하며 시대에 편승해서 매도했던 사람들의 말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 뿐 믿을 수 없는 말들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처럼 그 시절 배신의 추위를 예술로 승화시키지 않았다. 다만 그 인심의 원리를 뱉속에 각인시켰다. 입 속의 혀처럼 구는 동지를 믿지 않았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수하를 마음으로 거두지 않

았다. 외형적인 포용의 자세는 충실하게 갖췄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10.26과 그 이후의 경험은 그에게 두 가지 절대불변의 원칙을 남겼다.

대통령이 된 그에게 ‘친박’은 있지만, 꾸준히 곁을 지키는 2인자는 없었다. 자신에게 맞서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순간, 그와의 관계는 치명상을 입는다. 유승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 일같은 그 스키마에서 나왔고, 친박의 좌장으로 꼽히던 최경환에게 ‘단 두번의 독대’ 외엔 만남이 없었다는 토로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강조한 ‘진실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 사람과 동의어이다.

1974년 모친(육영수 여사) 서거 이후,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가온 최태민은 절망적인 상황에 고뇌하고 있던 그에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연이었을 것이다. 이후 자매처럼 지내게 된, 그의 딸 최순실은 최태민의 영적 면모를 그대로 빼닮은 존재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든 ‘믿을 만한 사람’이 등을 돌린 지점에서 그의 내면을 붙잡아준 그야말로 ‘진실한 사람’의 표본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은 그에게 결코 배신하지 않은 거의 유일,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비록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랬을 것이다. 한치의 사심도 없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에도 팔을 걷었고 그 이후에도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하는 동행자였던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비선’의 정체이다. 그가 비선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은, 저 배신의 정글 속에서 살아낸 힘이 그것이었었고, 누구에게도 안심할 수 없는 청와대의 고독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존재도 그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가장 크게 배신하여 처음의 뜻까지 모두 크게 그르치는 무시무시한 배신자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셈이다. 배신을 그토록 두려워해온 그의 길도 비정상적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있는 막장의 배신은 나라가 이 모양이 될 만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지진같은 재앙을 불렀다. 배신자와 진실한 자의 히스테리컬한 구별법으로 인간관계를 확장시켜온 그에게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잘못이었을까.

2.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별 거 아니다.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확증편향이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향이다.

최순실 아킬레스건 의혹의 비밀을 캔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투자자 워런 버핏은 “사람들은 기존의 견해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일에 능숙하다”고 꼬집는다. 이런 태도 때문에 새로운 사고나 관점이나 해석을 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피한다.

B가 무려 42년 동안 최태민 일가와 인연을 맺어오면서 거의 맹목적인 신뢰를 보여온 현상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1970년대 20대 B는 절대권좌의 만팔로서 치명적인 부모 사별을 잇따라 겪으면서 인생의 격렬한 부침(浮沈)을 경험한다. 1974년 3월 모친 서거 직후 ‘공황의 시기’에 편지한 장으로 접근한 최태민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과 달랐다. 최고 권력의 금지옥엽에 대해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말을 걸어오는 방식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최태민은 모친을 잃은 그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영적 능력을 통해 육영수 여사를 재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왜 슬퍼하고만 있는가?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서지 않고, 어머니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말했다. 그 당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최태민은 제시했다. 그것은 돌아간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라기 보다, 고독과 불안에 휩싸인 한 존재에 대한 진심의 위로였다.

그런데 이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최태민의 편지 속에 어머니 육여사와 B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런 일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B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최태민은 육여사의 영혼과 교감을 했다고 대답했다.

지금 많은 이들은 최태민이 당시 B에게 다가갈 때 이미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그는 당시 전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모성 상실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었고, 그때 의심할 나위 없이 ‘모성’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확증 편향이, 모친 육영수와 영매(靈媒) 최태민을 동일시하거나 동격으로 이해하는 인식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돌아간 모친이 절대선(善)이듯 최태민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갔을 것이다. 최씨는 그에게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와 여성의 시대가 올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거듭해서 당부했다고 한다.

첫 대면이 있은지 한달 뒤 B는 최태민이 연 임진강 구국집회에 갔다가 얼떨결에 구국선교단 명예총재로 위촉된다. 이 단체는 1년 뒤 구국여성봉사단으로, 1978년에는 구국봉사단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단법인이 된다. 이때 새마음봉사단도 만들어졌다. 이후 기업들이 이 단



그가 비선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은, 배신의 정글 속에서 살아낸 힘이 신뢰였고, 누구에게도 안심할 수 없는 청와대의 고독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존재도 믿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체에 기부금을 내려고 줄을 서는 형국이 되었다.

1979년 최태민의 비위(非違)가 심각할 정도의 물의를 일으켜 중앙정보부장이 비밀조사에 나서는 상황이 생겼을 때, B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에게 최태민의 비위사실보다 더 또렷이 보인 것은, 최태민의 권력을 시기하는 김재규 정보부장의 질투심이었는지 모른다. B에게 당시 최태민은 바로 어머니의 분신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김재규의 동생인 김향국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재규 부장은 B를 딸처럼 생각했고 최태민에 속고있는 것에 몹시 걱정을 했다고 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새로운 사고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점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최씨에 대한 신뢰는 깊어져 갔던 것 같다. 이 맹목의 신뢰에 대해, 주위에서는 최태민이 최면술로 B를 홀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태민은 박정희 전대통령 서거 뒤 10.26 관련 재판에서 '간접적인 동기'로 거론된다. 김재규는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최태민이 박 대통령의 총기를 흐리고 있는 것도 10.26의 한 동기였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그에게 B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고 ‘부정축재’ 혐의로 강원도의 한 부대로 끌려갔다가 1년여 만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적이 잘 보이지 않으나 1990년 육영재단 사태 때 다시 이름이 거명된다. 박근령과 박지만이 ‘최태민을 누나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최태민은 1994년 5월에 사망하는데, 가족들이 사망사실을 두 달이나 숨겨 7월에야 언론에 공개된다.

2007년 이명박 정부 때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분(최태민)은 목사님으로 나라가 어려울 적에 많이 도와줬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어렵고 힘들 때도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셨다. 저에게는 고마운 분이다.”

B가 최순실을 만나는 시기는 1976년경으로 보인다. 1956년생인 순실이 만 스무 살이 되던 때이다. 최태민은 여섯 명의 부인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순실은 다섯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째 딸이다. 순실은, 여러 자식들 중에서 최태민의 총기를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9년 6월 한양대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에서 박근혜를 안내하는 23세의 최순실

의 모습이 뉴스타파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그들의 오랜 친분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최순실이 B에 대한 호칭을 ‘언니’라고 하고 있는 정황은 19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어 왔다. ‘언니’는, B의 공식적인 인격과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순실의 초권력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2014년 11월 서울 신사동의 ‘샘플실’에서는 중국과 인도 정상 회담과 호주 G20 회의에서 착용할 대통령의 옷값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이 자신의 빨간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하는 놀라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국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일에, 비선의 보통사람이 나서서 사적으로 처리하는 풍경은 40여년간 최순실이란 존재의 정체성 B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웅변한다.

각종 국정개입 자취로 보이는 파일들이 발견되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데스크’ 본 흔적들이 드러나도 B는 최순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지 않는다. 김재규 앞에서 최태민을 옹호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얼버무리려 한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독일 최순실 언론 인터뷰가 서로 맞춘 듯 동일한 수준으로 표명된다.

최순실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한결같은 중심에서 빚어진 ‘오해’라는 인식의 틀을 아직까지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 사안이 지닌 심각함의 핵심이다.

3. 고아 콤플렉스(orphan complex)

고아 콤플렉스는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정적 결손을 만회하려는 충동을 가리킬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또다른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여 그를 묶어두려 하는 심리를 포함한다. 1990년 최태민의 전횡 논란으로 육영재단의 분란이 생기고 동생들과의 갈등이 노출되었을 때 B는 큰 충격을 받는다.

최태민 일가와 B의 관계를 ‘종교적인 교감’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는 최순실의 역할과 관련해 ‘신정(神政)’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다.

한겨레가 보도한 최순실의 녹취록에는 자신이 B와의 의리를 지켰기에, 여러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이 공유하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역설해주는 대목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은,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이며 실부(失父)의 내면을 채워준 인연들이란 인식을 B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금수저로 자라나 20대 때 충격의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에게 믿음의 지주가 된 그들을, 그들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에 와서 청산해야 하는 일은, 40여년 전의 고아 콤플렉스로 회귀하는 불안과 공황을 안겨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순실 쓰나미’에 매몰된 나라

‘최순실 쓰나미’가 나라를 온통 집어삼킬 형국이다. 대통령의 국가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정동력은 상실되고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가? 돌파구는 찾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불법모금 의혹에 불거진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의혹에 대해 ‘자발적인 모금’ ‘순수한 의도’ ‘해외순방성’과’ 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의 의혹을 받고있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를 비롯한 외교·안보·국방·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국가 내 부문서까지 사전에 입수해 손질까지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폭로가 잇따라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최씨의 일정기간 국정개입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비선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국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국가 문서에는 신년사등 대통령 국정연설문을 비롯한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발언, 청와대 인사, 정부조직개편, 경제문제, 해외순방 일정, 외국정상들과의 회담준비 참고자료가 포함돼 있다. 대부분 대외비(對外秘)로 분류된 이러한 문건에는 북한과의 비밀접촉 등 민감한 외교·국방·안보 기밀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특히 청와대로부터 수석비서관이나 장차관 후보자 명단을 미리 받아보는 등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듯한 정황도 드러났다.

딸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부정입학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최씨는 청와대를 통해 특기자대학입시정보와 자신이 소유한 땅과 건물 주변의 개발정보까지 미리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문화융성예산도 최씨가 직접 짰다는 보도도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대통령의 남북관계 주요 역점사업인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 DMZ평화지대설치 등도 최씨의 아이디어 또는 조언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씨의 기획으로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해 거대이익을 챙기려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매일 밤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 사무실에 두툼한 ‘대통령 보고자료’를 들고 오면 최씨가 측근 여러 명과 함께 장관인선문제, 심지어 개성공단 폐쇄같은 정부 정책까지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정윤희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박관전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나라 권력 서열은 최순실씨가 1위, 정윤희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엔 허튼 소리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 됐다.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대변인이었던 전여옥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 기고에서 “박근혜 대표 연설문이 모처에 나갔다고 하면 걸레가 돼 돌아왔는데 이제 보니 최순실 작품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제기해 온 개헌론을 반대해오다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



서옥식

본회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비선(秘線)실세 국정농단,
착잡하고 참담하지만

대통령의 부재로 야기될
‘국가 패닉사태’는 막아야

이 임기내 개헌을 제의했다. 하지만 개헌 제의는 ‘최순실 쓰나미’를 덮기 위한 ‘순실 헌법개헌’이란 비판속에 추진동력을 잃고 말았다.

지금 최순실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검을 채택한 가운데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최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중이다. 대학가와 시민단체에서 시국성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씨 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하야’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이에 박대통

국정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내란(內亂)과 외환(外患)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고 헌법(제84조)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정운영 마비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정공백이나 헌정중단은 막아야한다. 북핵 등 안보위협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재로 벌어질 ‘국가 패닉사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차제에 여야 정치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보와 경제, 민생은 팽개친 채 극한대립만 무성한 국회, 특히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생결단식 대립과 갈등에 많은 국민이 정치혐오증을 느끼고 있다.

지금 북에서는 김정일이 직접 나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대북 강경조치를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어깃장을 놓는 일부 야권과 종북세력들의 망언, 북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도 눈 하나 깜박하지않는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경제는 어려운데도 시도 때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데모와 농성·파업 등은 과거 4.19와 5.16, 10.26 전야를 방불케할 정도의 불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요 경제지표가 계속 추락하면서 성장률하락, 소비침체의 경제악몽이 재연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실업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양비론에 숨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보수언론 일수록 심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 땀 흘려 애쓰는 보람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을 보면 북한의 미치광이가 핵폭탄 위협을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데도 안보와 민생은 팽개치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들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온갖 추잡한 정권싸움과 파쟁에 몰두해왔다. 여기에 법치는 실종되고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거리투쟁과 파업이 일상화 하는 등 ‘폐법’만 난무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4.19와 5.16 전야가 연상되는 것은 오늘의 정치 사회환경이 그때와 유사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자기고백과 과감한 국정쇄신으로 국민의 경악과 분노, 허탈감을 추스려야한다. 대통령

령은 스스로 검찰 조사도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비정상부터 정상화해야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구호다. 여·야는 어느 쪽이든 당리당략적인 이전투구로 정국혼란을 부채질했다간 내년 대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야권은 정국수습의 유일한 방안으로 ‘거국중립 내각’을 먼저 꺼내들었으나 해외에 잠적한 최씨가 귀국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자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내년 대선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파선과 같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이다.

극한 대립 공권력실종 안보 불감증 현상 4·19와 5·16전야 상황 방불

령은 야권의 타깃이 돼온 청와대 참모진을 전원 퇴진시켰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 대통령이 정부의 공적 시스템 대신 친분이 있는 사인(私人)에게 국정에 관여토록 용인한 데서 출발한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청와대는 과거 ‘정윤희 국정개입문건 유출 사건’ 때 비선은 없다면서도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뒤에도 그러한 비선의 존재가 왜 방치됐고 누가 비선을 비호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비선개입은 국정에 대한 참모들의 토론이 배제되고 공식 기록도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지닌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국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사태의 해결 당사자도 박 대통령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퇴임일인 2018년 2월 25일까지는

북에 묻자고 한, 그 사람에게 묻는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11월 8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쟁점이 등장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괴뢰(Puppet)”로 몰아붙이는 엉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도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전의 구도(構圖)가 작금의 미국 대통령선거전의 구도와 닮은꼴이 될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엉뚱하게도 송민순(宋旻淳)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근간(近刊) 회고록, 『빙하(氷河)』는 흐른다. 비핵화(非核化)와 통일외교의 현장(現場)이 그 명석을 깔아 주고 있다.

2007년 11월 21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한 해 전인 2006년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고, 이 표결에서 한국은 ‘찬성’ 표를 던졌다. 그런데 한 해 뒤인 2007년의 표결 때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 와서야 결정한 입장은 ‘찬성’이 아니라 ‘기권’이었다. 이 같은 노무현 정권의 ‘기권’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그 가운데서도 인권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방치되어 있는 탈북동포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가 ‘찬성’ 국가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한국 외교의 일대 촌사(樁事)였다. 더구나 2007년의 유엔총회 표결에 붙여진 북한인권결의안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가 우방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집요한 외교 교섭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적잖게 ‘완화(緩和)’시킨 것이었다는 것을 송 전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발간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는 이 같은 한국 외교의 파행(跛行) 경위에 관한 세간(世間)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말썽 많았던 2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의 후속조치로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11.15~17)이 개최된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의하면,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대책 결정을 위하여 11월 16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는 주무장관인 송 전 장관이 문제의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하여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당시)과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당시) 및 백종천(白鍾天) 외교안보실장(당시) 등이 ‘반대’ 내지 ‘기권’을 주장하여 격론이 벌어진 끝에 결론 없이 끝났다.

송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8일 저녁 다시 열린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도 자신이 ‘찬성’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격론이 계속되자, 문재인(文在寅) 당시 비서실장이 김 국정원장 제안을 받아들여 “남북대화 경로를 통하여 북측의 입장을 물어 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송 전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 그로부터 다시 이틀 뒤인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수행했던 자신에게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으로부터 받은 “북측으로부터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터이니 인권결의안 표결 때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면서 “북측에게 묻지 않고 일단 ‘찬



이 동 복

15대 국회의원
전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문재인 당시 실장 주재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북측 쪽지 보여줘

성’ 투표를 한 뒤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면서 “기왕에 북측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으니 이번에는 그냥 ‘기권’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송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이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사표낼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했다. 한국이 ‘기권’ 표를 행사한 유엔총회의 표결은 바로 그 다음날 있었다.

이 같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격렬한 정치적 공방전을 촉발하고 있다. 이 공방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라운드의 ‘종북(從北)’ 논란을 내년 대통령선거전의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북측에 ‘물어본 뒤 결론내자’ 주장

불어민주당에 예상치 않았던 정치적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치적 공방전의 포문(砲門)을 연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쪽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잠룡(潛龍) 가운데 가장 선두주자(先頭走者)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제의 인권결의안 표결 때 ‘기권’하는 결정을 북측에 물어본 뒤 결정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하여 문재인 씨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정치공세에 불을 댕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문재인 씨의 행동이 “단순한 ‘종북’이 아니라, ‘종북(從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북측에 물어 본 결과가 아니냐”고 시비를 걸고 있다. 새누리당의 속셈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집요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추진으로 첨예화(尖銳化)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대북 종속 성향’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대통령선거운동 전략을 점화(點火)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2007년 11월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표결 대책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정(통일부장관), 김만복(국정원장), 백종천(외교안보실장) 등 문제의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입장은 이미 11월 16일 모임에서 ‘기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북측의 의견을 물어 볼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로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의 진실성을 헐뜯고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차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억’은 사람마다 달라서 엉뚱한 ‘진실 게임’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 가장 큰 쟁점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실제로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물어보고 북한의 주문에 따라서 ‘기권’한 것이 사실이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자는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진실 게임’에서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문재인 씨이다. 그러나 문재인 씨 본인은 이번 논란의 ‘뜨거운 감자’인 “대북 사전 문의” 여부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당시는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이루어지던 때”였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취지에서 활발한 내부 토론과 다수결을 통한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문제의 ‘기권’ 결정을 도출했던 것”이라는 동문서답(東問西答)식 ‘오리발 발언’만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 같은 문재인 씨의 ‘오리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좌익 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봤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 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가 하면, 문재인 씨의 당시 행위가 대한민국의 적(敵)인 북한과의 “내통(內通) 행위”(이정현 대표)로 단정하여 문재인 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정치적 추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작금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의석분포 상황 속에서, 국회 차원에서 “밑 빠진 독” 격의 정쟁(政爭) 현안(懸案)으로 다루는 것으로 흑백(黑白)이 가려질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이 문제는 꺼지지 않는 의혹으로 남겨져서 내년 12월의 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종북’ 논란의 속편(續篇)으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에 앞서서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우선 감사원으로 하여금 ‘직무감찰 규칙’(제정 1997.12.15 감사원규칙 124호) 제4조를 발동하여 ‘직무감찰’의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 드러난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와 그 같은 행위에 연루된 인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행위를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분명하게 가려진 진실을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긴급 제언

역사의 고비를 지켜본 원로 기자들의 증언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역사가 보복한다



최 서 영

본회 회우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

4·19혁명으로 탄생했던 민주당의 장면(張勉) 정권은 우리 역사상 대표적인 반면(反面)교사가 되어 있다. 절대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렇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정황이 몹시 불행하게도 그때를 자꾸 연상시키게 해 큰 걱정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숨페터는 「제국주의」를 논하면서 “인류는 격세유전(Atavism)의 경향을 띤다”고 했다. 4·19가 있는 지 어언 60년이 되어가니 바야흐로 그 격세대(隔世代)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4·19는 학생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다종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 혁명이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혁명은 혁명세력이 낮은 질서를 붕괴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새 정권을 창출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르러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4·19는 완전한 혁명이라 보기 어렵다.



5·16 군사정변 직후 시청광장에 나타난 왼쪽부터 박종규, 박정희, 차지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자 당시 정부는 외무장관으로 있던 허정(許政)씨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삼아 과도정부 체제로 통치에 임했다. 과도정부가 착수한 과업은 새 정권을 세우기 위한 헌법 개정과 총선거였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책임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국회는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제(兩院制)로 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치루어진 것이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총선거였는데 헌정 사상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된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의원은 의석 233석 중 175석을 얻어 원내 3분의 2를 차지했고 참의원은 의석 58석 중 과반수를 넘는 31석을 얻었다.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정부를 구성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판 판이었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재해 있던 파벌 싸움부터 시작했다. 윤보선씨계의 구파(舊派)와 장면씨를 추종하는 신파(新派) 사이에 극심한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명목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는 구파의 윤보선씨가 당선되었으나 실질적인 집권자인 국무총리에는 구파의 김도연씨가 신파의 장면씨에게 패배, 정권은 신파가 차지했다. 이런 파쟁 과정을 거쳐 민주당은 두 개로 쪼개져 신파의 민주당과 구파의 신민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과 싸우기 위해 1956년에 만들어졌던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자마자 이와 같이 4년 만에 쪼개져 사사건건 갈등·대립하면서 파벌 싸움으로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정치가 이 모양이 되자 국가적 질서가 엉망이 되었다. 독재가 무너지면서 독 터진 붓물처럼 자유가 넘쳐나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데모 없는 날이 없었고 데모 안 하는 집단이 없었다. 데모를 통제해야 할 제복 입은 경찰까지 데모를 했고 어린 초등학교 아동들도 요구조건을 내걸고 거리에 나서는 괴이한 일마저 일어났다. 데모로 날이 새고 농성으로 날이 저무는 통제력

북핵 등 절박한 위기에
오로지 정권싸움에만 몰두

대들보가 무너지려는데
찢어진 문풍지만 탓해서야

을 상실한 데모 공화국이라는 자학적 표현까지 생겼다.

이런 때 언론이라도 제기능을 발휘해 질서를 잡아줬어야 하는데 이 또한 말이 아니었다. 언론 자유를 빙자해 우후죽순처럼 신문 잡지가 생겨났는데 대부분 사이비 가짜 언론이었다. 당시 자료를 보면 4·19전에 비해 4·19 이후 5개월 후인 1960년말 현재 일간신문이 41개에서 389개로, 주간신문이 136개에서 476개로, 통신사가 14개에서 274개로 늘어났다. 월급 못 받는 엉터리

4·19 후 새로 출발한 제2공화국(장면 정권)은 이렇게 1년도 견디지 못하고 역사에서 퇴출당했다.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후 귀중하게 얻은 자유가 혼란과 무질서, 집단이기주의와 정치인들의 파벌 싸움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좌절했다.

우리 수준으로는 민주주의가 아직 빠르다는 패배감, 무슨 수가 나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 대망론 등이 팽배해져갔다. 따라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아무도 합헌적 정부를 타도하고 통치권을 탈취한 쿠데타 세력에 항거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론이 대세였고 일부 국민은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4·19 후 출범했던 장면 정권은 누구도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우리 역사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피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꼴을 보면 옛날이 되돌아 온듯해 한숨이 나온다. 북한의 미치광이들이 핵폭탄 위협을 하는 절박한 위기인데도 대통령을 비롯, 국회와 정당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솜씨를 보면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탄식이 안나올 수 없다. 대들보 무너지는데 찢어진 문풍지만 탓하고 있다.

정치가 이 지경이어서 국가의 질서 또한 말이 아니다. 데모, 농성, 파업이 줄을 이어 일어나고 원칙보다는 폐쇄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폐풍이 맹위를 떨치는 판국이 되어

있다. 우리의 이런 내부 분열과 갈등을 틈타 친북세력이 더욱 활개 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4·19 후 있었던 제2공화국 시대의 과거를 여기 새삼 반추해 보는 까닭은 우리 현실이 자꾸 그때를 닮아가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면 역사의 보복을 당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정신 좀 차리고 지난 장면 정권 때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모두 명심해야 한다.

4·19로 태어난 張勉 정권 전철 밟아서 안 돼 ‘독터진 붓물’ 자유 넘쳐나 세상이 무법천지로

리 기자들이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언론망국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장면 정권이 집권 후 이런 상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쪼쪼매고 있을 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우리 국군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절박한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궐기했다”는 것이 1961년 5월 16일 새벽 KBS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첫 혁명선언이다.

정치인들은 왜 국민 설득을 기피하는가

긴급 제언

집권에만 올인, 국리 민복 안중에도 없어

참 신기한 나라이고 대책 없는 사회이다. 위기라는 말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최근에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건재하고 경제는 마비되지 않았고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여전히 세계 10위 경제력을 과시하며 제3세계 국가들은 자기들의 발전 모델로 삼는다.

우리 정치의 특색을 파당정치라고 한다. 따라서 정치는 파당정치이다. 민주정치체제에서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인간들이 모여 정권 쟁탈을 위해 다른 정파들과 경쟁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내버려둔다.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그들의 정책이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부와 야당 간의 밀월기간이다.

선거란 정치적 카타르시스이다. 선거라는 큰 잔치가 끝나면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단합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5년 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나선다. 새 정부의 이득은 곧 야당의 손실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이 현 정부의 이득이라면 서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등 그럴싸한 구실을 붙여 반대하거나 지연시켜 그 실현을 방해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한강에 제일 먼저 뛰어든다”는 잠재적 후보도 있으니, 제로섬 게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경제는 어떠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라는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후발국들의 추격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해마다 줄어든다.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대책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귀족노조 문제이다. 노조는 정당한 분배 개념이다. 이것이 노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엄청난 봉급을 받아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계나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주나 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분배를 촉구하면서 “나는 빠라”고 한다. 이것이 이들이 벌이는 총파업의 본질이다. 대기업은 자연히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며 종업원은 감소되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경기부양책은 내용이 부실해지고 국내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때 롤스로이스와 재규어 등 세계적 자동차를 생산하던 영국에 지금 자동차 공장이 없는 상황을 닮아간다.

광화문 광장이나 덕수궁으로 나가면 마주치는 것이 이미 잊은 사건들을 일깨워주는 플래카드들과 시위꾼들이다. ‘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은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도롱뇽 터널, 최근에 사드 배치 등 이슈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나타나



구 대 열

영국 런던대 국제정치학 박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대로면 망한다면서도 굴러가는 신기한 나라

기 때문이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더 한심하다. 국가적 재산에 대한 불법적 도적행위인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를 막던 해경이 오히려 당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기, 미사일 실험과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래도 돈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겠느냐?”는 뜻이 말이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이를 감싸려는 세력이 상존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북한과 한판 붙어보자, 우리도 핵무장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자 주장도 제법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양분된 상태이다.

한 마디로 내우외환이다. 안에서는 우리의 정치, 사회제도와 이념체계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틈만 보이면 국민들은 흔들고 선동한다. 이들은 정부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의도가 없다.

이들의 행동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 없다.

새 대통령 당선되면 곧바로 ‘5년 후’ 겨냥 ‘정부 이득=야당 손실’ 제로섬 게임 극치

정부나 기업을 완전 굴복시킨다는 것은 정권의 붕괴나 기업의 도산, 나아가서 사회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제 1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끌려온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또 무엇으로 트집을 잡을 것인가.

시야를 넓혀보면 지금 한국은 인류사에서 처음 맞는 노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물질과 인간관계, 다른 계층에 속하는 인간들 간의 관계 등 모든 ‘사회관계’가 혼란스럽다. 패러다임이 실종되었다는 말이다. 또 너와 나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행동양

식이나 운용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다. 국정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기자회견에서 말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나 일반 참고인들을 검사자 죄인 심문하듯 대해서도 안 된다. 정부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원장들이 의원들의 고압적인 질문을 견디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그러면 대책이 있는가? 명쾌한 답은 어렵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나 양성평등 등 제도적·법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했지만 이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질적·제도적 장치와 인간의식의 변화 사이에는 시간적 지체(Time Lag)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지도층의 선도적 노력이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특권을 누리는 귀족들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의 지도층이나 재벌 등 특권층에게 희생적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서양의 젊은이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회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이므로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곧 영생이라고 믿었다는 말이다. 우리의 특권층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믿으며 이 사회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그들의 가족과 자손들이 ‘정의롭게 특혜를 누리며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 희생이 가능한 것이다. 지도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 단계에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도층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선거판을 휩쓰는 인기영합책 근절이다.

그 다음 지적할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정치인들의 자세이다. 민심은 천심이며 여론이 이를 대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심=천심=여론이라는 등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론=정의라는 등식도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 각자의 이익에 비추어 투표하는 행태에서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파동과 촛불 시위, 미국과의 FTA 반대, 그리고 끝도 없이 지속된 세월호 시위 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했다. 이들 문제들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이 지도자의 지적(知的) 순발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등 대외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중립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지만, 국제정치에서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평화 시에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위기 시에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일본이 영·일 동맹이나 미·일 동맹 시절에는 번영을 구가했지만, 독자노선으로 나가면서 파멸을 맞았다. 북핵문제도 한·미동맹이란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과 관계를 조정하는 가운데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 당신이 무소의 뿔처럼 싸워라

상업주의에 밀린 방송에 던지는 제언

2009년 이른바 미디어법이 제정되고 적용된 이후 6~7년간 한국의 방송은 실로 <조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표현은 2009년 직전까지 시행된 격렬하고, 빈번하고, 열기에 가득 찬 토론, 비판, 연구와 항의 등이 나타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였다는 점을 표시한다. 두드러진 변화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엄청나게 늘어난 채널의 상업적 행태에 밀린 나머지 공영방송이 취약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에서 보는 채널들의 황금영역을 쇼핑이라는 상품판매행위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를 통제하고 합리적 조절을 시행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권력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재정적 취약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간광고의 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 소비자, 즉 국민의 판단과 염려는 다르게 표출된다. 모든 방송-, 특히 방송계를 주도해온 지상파 채널들이 일정부분 규범적 의무로 알려져 있는 공정성, 공익성, 문화성을 이제는 모두 <돈>으로 계산하는 거친 세대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수신료 인상이 좌절된 까닭도 경제적 의미보다는 방송이 갖추어야 하는 국민의 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방송은 애써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송이 아무리 첨예한 경쟁에 시달린다 해도 수용자는 방송에 주어진 최소한의 규범인 사회감시 기능, 즉 언론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기대는 포기할 수가 없다.

유럽(독일)처럼 방송의 원칙이나 철학 자체를 <국민의 민주적 의견 형성 기능 함양>으로 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집권한 권력으로만 기우는 노골적인 편향성은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접광고, 협찬을 포함하여 중간광고까지 허용된다 하더라도 신뢰가 없이는 공영방송, 지상파방송으로서의 안정성은 되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의 민영, 사설, 상업 채널들도 전 국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한다. 위에 지적한 TV 전체 채널 편성에서 미국의 FCC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익, 편의, 필요>로 내세운 원칙은 가정에



김학천

건국대 명예교수
언론광장 대표

방송은 권력 종속물 아닌
국민의 사회감시 장치

공공성 결여 해결 방법은
방송인의 개혁의지 뿐

들어오는 채널의 순서와 조합이 대상별·내용별로 고르게 짜인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애당초 방송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릇된 환상으로 출발한 약점이 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 방송의 막가는 경쟁상태나 황당한 변모를 감시하고 조절해 줄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도 역시 지배구조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수를 점한 세력이 임명해 준 정파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언론과 문화의 기본 전제로서의 <중도와 공정>은 참으로 찾기 힘든 세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이 나타난 데는 누적된 오류의 탓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 ① 상업방송의 첨예한 경쟁력 추구하고 공공재정의 혜택을 보는 공영방송의 정치권력의 장악 욕구 및 채널의 특성화 소멸,
 - ② 집권권력 우위의 지배구조 구성과 방송인의 권리보장 문제(공영방송이사회 구성, 사장 임명, 직원해직 등),
 - ③ 다채널의 광고료 경쟁(제한된 파이의 저속한 쟁탈방식),
 - ④ 기술발전에 따른 전송방식 결정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분단국의 고려사항 무시(통일을 위한 북한으로의 방송 유입 고려사항),
 - ⑤ 케이블, 위성, 인터넷 방송 등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공정성, 공익성 취약.
- 위에 지적한 필연적인 개혁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유지되었는가 하는 점에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공익성, 문화성은 오히려 취약해졌고,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잡은 후에는 방송의 정파적 이용에만 거의 필사적이었다. 또한 채널이 무수히 많아질수록 투자한 자본가의 <이익개념>은 방송의 최소한의 규범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세태를 맞게 된 것이다.

현재의 방송현상에 불만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이와 같은 현상은 해소될 수 있을까 희망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인가. 어렵지만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긴 하다.

방송인, 방송담당자, 넓게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방송인, 언론인 결코 집권권력의 종속물이 아니고 국민 다수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감시 장치>라는 사실을 다짐하고 다시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런 소신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때 과거처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희생을 강요받는 사태는 반복될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과 자본이 지니는 욕망, 그 영원한 트렌드를 순화시킬 방법이 방송당사자들의 노력 밖에는 없는 형편이다.

참으로 답답한 결론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발언대

한국문학관 은평건립, 서둘러야 한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육성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문화융성이란 국정기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은 올 상반기 중 적지를 선정하여 2019년에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퇴임 전에 갑작스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계획을 중단해버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건립유지 자치단체들이 12여 곳에서 난립과열경쟁으로 선정에 잡음이 일고 있어 중단했다고 한다. 한국문학관건립계획의 중단된 처사는 행정상의 무책임한 소치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한국문학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체로 2019년에 완공예정으로 2016년 4월말

에 계획을 공표했다.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3,800㎡ 연면적 10,000(최소) 내지 45,000㎡ 규모이었다. 공모한 자치구는 서울 은평구, 파주시, 군포시, 춘천시, 인천시, 진천군, 광주광역시, 가평군, 원주시, 춘천시, 서울 동작구 등이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한국문학 속의 은평이란 특별전도 열었고 은평구와 연고있는 문인 1백여명을 전시하며 은평구를 “한국문학의 뿌리이자 고향”이라고 공포한 바 있다. 은평구에서만 50년째 살고있다가 고인이 된 이호철 문학과 20여년 살았던 최인훈, 김광주·김훈 부자(父子)는 특별코너에 전시됐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 문장가 최치원과 인연이 있는 청담사터, 한글을 창제한 성삼문, 신숙주 등이 독서했던 진관사는 역사의 옛 터이다. 한국문학 속 은평, 특별전이나 은평의 한국문학은 너무나 뚜렷하다. 국립한

국문학관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어디로 유치가 결정되든 지자체들이 지금의 열정과 의지를 되살려 곳곳에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들을 만들려는 초심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크다.

일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출생지 도쿄뿐 아니라 그가 교직생활을 한 구마모토, 마쓰야마에서도 “내 고향 문인”이라고 한다.

은평구의 경우도 은평구 주민들에게 한때 이곳에 살았던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향수’가 되살아나면서 각인되고 있는데 고장마다 자랑하는 문인들의 이름이 은평처럼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고장마다 자랑스런 문인들의 이름이 되살아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시책에 힘입어 한국문학 진흥의 싹은 활짝 필 것이다.

정용식 본회 회우

본회, 중앙추모공원과 30%할인 계약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오른쪽)과 중앙추모공원 대표가 장묘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추모공원묘지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은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소재 중앙추모공원 사무실에서 이진경 추모공원 사장과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추모공원 이용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대한언론인회 회원은 이 추모공원을 이용시 대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이용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문을 연 중앙추모공원에는 납골당을 비롯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잔디장 및 수목장을 갖추고 있는데 위치와 장례

방법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한데, 기존 추모공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서울시청에서 80Km지점에 위치해 있어 자유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70분 소요된다. (031-833-7737 · 아래 회보광고 참조)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착한 가격으로 제공!!

영혼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중앙추모공원**



고객상담전화 031-833-7737, 7738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313-1(마유로 58-38)
E-mail : cmp5838@naver.com / Fax : 031-835-7737

THE PEN

11월호 신문제작 편집회의가 격론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식 이하의 정치개혁'을 11월의 아젠다로 선정했다. '민주화' 이후 누적된 권력형 정치 부패와 비리가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북관련회의 부인'·'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폭로



〈편집자의 편지〉

돼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집권당 대표의 총선 직전 야반도주, "북한 인권 유엔 결의를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는 회의가 "생각 안한다"는 문재인 의 망각, 최태민의 망령이 부활한 것 같은 '최순실 사태' 등 상식을 초월한 사건 속출로 국민은 망연자실

2016년 정치 모순과 국가 위기설은 사생결단(死生決斷)의 대권 경쟁에 의한 정치 혼란, 여소야대 정국의 정치 저질화, 리더십 실종, 누적된 정치권력 부패가 그 원인이다. 2016년 정치 파행과 비슷했던 4.19, 5.16, 10.26전야의 모순을 THE PEN으로 고발했던 최서영(전코리아해

럴드사장) 이덕주(전경향신문 정치부장) 윤기병(전중앙일보 정치부장) 대한언론인회회우와 전 한국일보기자였던 이동복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구대열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정치 부조리 고발과 개혁론을 정치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아방

4·19, 5·16, 10·26 정변을 벌써 잊었나

하고 있다. 정변을 부채질하는 정치 혼란에 일부 언론까지 뜬 여론[浮議]·황색 저널리즘·폭로저널리즘의 탁류에 휩쓸려 4.19, 5.16, 10.26 전야와 비슷한 정국이 심상치 않다.

대한언론 368호는 4.19, 5.16, 10.26 전야를 지켜보며 고뇌했던 원로 언론인과 만평과 시사만화로 한국정치를 풍자 계도해온 고바우·나대로 화백에게 대안을 물었다. 뜬 여론[浮議]이 정론(正論)을 구축(驅逐)하고 정상배가 정치 불호도 했던 시대에도 의연한 자세로 사회 감시견 역할을 했던 원로 언론인들의 직필과 고바우·나대로의 만평과 시사만화로 이 시대의 모순과 파행(跛行)을 경고한다.

한국언론까지 혼탁하게 한

송 피디와 교육방송 사장을 역임하고 대학 강단에 섰던 김학천 건국대 명예교수가 10월15일 열린 한국언론학회 2016년 가을철 정기 학술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위축과 편성의 균형성 상실을 지적하며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문화성 회복을 촉구했다.

대한언론368호에는 언론학과 언론계의 논란과 새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난을 신설하고 회원들의 문화 활동 등 회원 동정을 상보하는 기사도 늘었다. 대한 언론인회 회원들의 시사 평론, 생활 에세이 투고가 폭주해 오피니언란도 만들 예정이다. 회원들의 투고와 왕성한 문화활동으로 지면이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박석홍 본회 편집위원장

알림

전주 모악산 단풍산행 안내

산악회, 11월 17일(목)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앞 출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8시 가을 단풍산행을 전주 모악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 산행지: 전주 시내 모악산(산행 코스 2Km) 대원사까지 왕복 약 1시간 10분 소요, 귀로에 전주 덕진공원 등 답사 예정

△ 출발지: 2016년 11월 17일(목)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앞 (월드컵관광버스) 정시 출발

△ 참가신청: 11월 11일(금)까지 접수, 선착순 35명
연락처: 나용경 총무 010-2691-0084
최병요 위원장 010-2862-4020

△ 참가비: 1인 20,000원 (가족동반 환영)
※오찬 장소: 낮 12시 30분 모악산 부근 '모학촌' 식당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최귀조

회우 칼럼 - 어제 오늘 사이

나의 '질서 캠페인' 참여기

내가 '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마음먹은 것은 조창화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일장 연설' 때문이었다. 지난 4월, 양꼬치에 배갈이 도는 회식자리에서였다. "나이 든 사람들은 마땅히 '질서 지키기' 계도에 앞장서야 한다"는 그의 힘찬 설화에 감화되어 나는 지난날의 소극적인 대응을 뉘우치게 됐던 것이다.

조 선배는 KBS 주일·주미 특파원 경험까지 곁들이면서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이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질서를 지키는지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 이토록 기초질서를 잘 지켜 나가는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역시 사회질서와 법규를 존중하는 독일인들도 우수한 민족이다...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살만해졌다고는 하지만,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는 계도 실천을 예거(例擧)하기



유재철

본회 편집위원
전 세계일보 주필

가 '생명의 위협'마저 느낀 경우를 겪기도 했다. 전철 안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한 청년이 가방을 제 옆자리에 두고 있기에 "남이 앉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나무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두 주먹부터 불끈 쥐는 것이었다. 솔뚜껑만한 손이었다. 조 선배의 레이저

광선을 내뿜는 듯한 그 형형한 눈빛이나 카리스마를 지니지 못한 나이지만 물려서지는 않았다. 승객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끝까지 '앉을 권리'를 주장했다. 마침내 그 청년이 가방을 집어서 제 무릎에 놓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아내는 나의 만용을 탓하고 또 탓했다. 노인이 시비에 걸려 청년에게 맞아죽었다는 신문기사도 못 봤느냐, 아까 그 술냄새 나던 청년이 "세상 그만 살기로 작정하던 차에 너 잘 걸렸다"라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면 어쩔 뻔 했느냐, 제발 나이에 맞게 살아라...

초등학생에게 질서 배워야 할 어른도 많아 풍족해도 공중도덕 무시하면 선진국 안 돼

도 했다. 그 하나가 보행질서인 '우측통행 지키기'라고 했다. 상대방이 끝까지 좌측통행을 고집해 충돌에 이르더라도 결단코 비켜서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 경우, 상대를 향해 "우측통행!" 하고 외친다는 거였다.

어쨌든 이 '캠페인' 참여에는 모진 시련도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예의 회식 다음날, 아내의 PET 검사를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 핵의학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건장한 한 젊은이와 다투게 됐는데, 그가 환자용 화장실을 사용하려 한 게 발단이었다.

나는 그를 제어했다. "불과 몇 걸음이면 갈 수 있는 일반 화장실을 놓고 왜 굳이 환자용을 사용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거다. 그러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라고 반말로 대드는데 막무가내였다. 때마침 이를 지켜보던 어느 남자 간호사가 "일반인은 환자용 화장실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시비의 종말이 어떻게 됐을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돌이켜 보면, 우측통행을 지키다가 시비에 걸린 일이 있었고, 전철 안에서 매너 없는 청년을 나무라다

어떤 게 나이에 걸맞게 사는 모습이란 말인가? 오늘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사회질서와 예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교육에도 실패한 탓이 아닌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어른들도 많다. 그게 바로 내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공공질서부터 솔선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다.

"문화탐방 현장에서 아이들이 떠돌고 뛰어다녀도 부모들이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매너로 조용하게 탐방하는 일본인들과는 달라요." 최근 대한언론인회 주관으로 공주 문화탐방을 갔을 때, 문화해설사가 했던 말이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일본의 교육이 새삼 떠올랐다.

물론 우리 교육도 진일보하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도 향상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함양시킬 책임은 여전히 이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좀 더 유연하게 이끌 수 있을까. 조 선배에게 한 수 배우기를 꿈 청할까 한다.

원로 탐방 안녕하십니까

매일 8시간씩 쉽없이 워드작업...

곽찬호 본회 회우, 일본織研新聞社 논설위원



90세의 고령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곽찬호 회우.

나이 든 사람들은 흔히들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모든 일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 그러나 90세란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필과 강의 등으로 바쁘게 하루를 쪼개쓰는 원로 언론인이 있다. 나이를 잊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화제의 주인공은 일본 아사히신문 자매지 織研新聞社 한국주재 논설위원 곽찬호(郭贊浩)씨.

– 요즘 선생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도 매일 평균 8시간씩 PC로 워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히 놀라운 체력의 소유자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나이이면 바깥 출입도 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다.

–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젊어서부터 술·담배를 일절 삼가고 있습니다. 일본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유도와 검도, 수영, 총검술, 글라이더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간다. 노년에 흔한 고혈압이나 당뇨·전립선염도 없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0시쯤에는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쯤에는 일어나 갑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그가 언제나 건강했던 것만은 아니다. 10년 전에 위암에 걸려 위를 3분의 2나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그 결과 식사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건강유지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소식(小食)을 본의 아니게 선택하게 된 셈이다.

곽찬호씨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여러 번 놀라게 된다. 우선 9순의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인다는 점이다. 대략 10~15년은 젊어 보인다. 용모뿐 아니라 말소리도 젊은이처럼 쩌렁쩌렁하다. 걸음걸이도 무척 빠르다. 웬만한 젊은이도 따라가기 힘들다. 세월은 그에게서는 비껴서나보다. 직함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

도 놀랍다. 중국 연변대학 객좌교수, 일본 고오베대 객원교수, 한국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등 20여 개나 된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직함 또한 헤아릴 수 없다. 평통자문위원으로 35년이나 일했다. 특히 織研新聞과는 44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이런 때문인지(?) 그의 명함에는 앞뒷면 빼곡히 직함이 기록돼 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자 돌림의 화려한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무역사, 경영진단사 등이 그것이다.

그의 학력 또한 화려하다. 일본 고오베대, 서울대 및 동대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등 국내·외 여러 명문대를 두루 거쳤다. 그러다 보니 출신 대학과 관련된 직함도 넘쳐난다. 서울대총

동창회 종신이사, 고려대교우회 상임이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동창회부회장 등... 그는 현재도 織研新聞에 연간 평균 120건의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주로 시사 및 경제해설이다. 또 일본 고오베대와 중국 연변대 등에서도 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및 각급기관에서 강의도 계속하고 건국대 내 중국인교회에서는 인성교육도 지도한다. 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는 일본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신아일보·경동신문·통일신문·광진신문 등에 경제 및 시사해설 기사를 싣고 있다.

글 : 조희곤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편집위원

내 귀여운 손주가 자라서 살아갈 세상은/평화롭기를/풍요롭기를/그리고 정의롭기를/내 손주는/사랑받기를/그리고 사랑하기를/배우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주기를/그 무엇보다/미움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할애비가 보는 이 세상이/너로 하여 조금 더 아름다워졌듯이/내가 닮고 싶은 지금의 깨끗함을 간직하기를.

– 유자호·전준엽 동시화집 <스마트 아기> 서문.

두 언론인이 만나 전시회를 열었다. 한 사람은 방송 기자 출신의 시인이고, 또 한 사람은 신문 기자 출신의 화가이다.

유자호 시인은 KBS 파리특파원과 SBS 정치부장, 보도제작국장, 기획실장, 논설위원실장, 라디오본부장, 이사를 역임한 뒤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을 지냈다. 기자 생활 틈틈이 글을 써 14권의 신작시집과 4권의 시선집, 5권의 산문집이 있다.

전준엽 화백은 34회에 걸친 국내·외 개인전과 350여회에 이르는 기획전을 연 중견 화가이다. 그는 학원사와 문화일보 기사를 지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다. ‘화가의 숨은 그림 찾기’ 등 4권의 저서가 있다.

발단은 시인으로부터였다. 반세기 동안 시를 써온 유 시인은 동시집을

老기자 시인과 화가...2색 전시회



왼쪽에서부터 이근배 예술원 부회장, 이병대 본회 회장, 김후란 문학의집 이사장, 전준엽 화백, 유자호 시인, 변주선 대림성모병원장, 유성규 시인 (서울 인사동 일조원갤러리에서).

낼 생각을 했다.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쓰여진 동시가 좀 있었는데, 지난 해 손자를 보고난 뒤 동시가 집중적으로 쓰여졌던 것이다. 작심을 하고 쓴 동시가 50편을 넘자 동시집에 그림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평소 절친한 전 화백의 의사를 타진했고, 시인으로부터 54편의 동시를 넘겨받은 화가는 32편에 그림을 그렸다. 이때 화가는 시인에게 전시회를 열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이 확대됐다.

인사동의 일조원갤러리가 동시화전이라는 특이한 전시회를 초대전으로 열기로 함으로써 10월 1일부

터 20일까지 전시회가 열렸고, 13일에는 동시화집 ‘스마트 아기’의 출간을 축하하는 리셉션이 베풀어졌다. 시인의 70세 생일이기도 한 이날, 150 여명에 이르는 하객들이 갤러리에 들러 작품들을 감상하고 시인과 화가를 격려했다.

유 시인은 전 화백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학적인 화가”라고 부른다. 전 화백은 이번 전시회가 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즉 시를 읽고 그 감상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시인의 육필로 쓴 시를 그림과 나란히 한 액자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본격 시화전의 전범을 보인 것이다.

김현우 박사 감사패 수여



본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은 10월 28일 본 사무실에서 김현우 박사(단국대 의대 명예 교수)에게 3월부터 반년간 매월 회우들에게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준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토벽’ 제13호 출판기념회



영덕군 출신 문인들의 「토벽(土壁) 문학회」 회장인 본회 회우 한영탁(전 세계일보 논설위원·수필가·번역가)은 10월 16일 영해(寧海)

관어대(觀魚臺)에서 ‘토벽’ 제13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토벽’ 2016년 집에는 시조시인 박찬구(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장), 동시작가 김종완(부산 남성초교 교장), 이장희 시인 등 32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광장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사설

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북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이 드러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임시 국무위원 간에 신중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할 국회는 연일 최순실 의혹을 지적할 뿐 특검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주

단으로 대통령의 자격론까지 나온다. ‘박근혜’라는 말까지 돌면서 정부의 정통성까지 흔한 한국에서 대통령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 이런 때일수록 냉철한 수습방안을 내놓

개각을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로 임명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는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이 들어서도 민심을 수습하기는 어려운 것 국내각 자체가 정국 수습을 더 혼란스럽게 그래도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에 없다. 최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인사, 정국 수습용 개각을 단행하는 수순을 밟 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그제 새누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시 실기(失

〈동아일보 10. 28 사설〉

칼럼

대 실패 猛省해야

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갈수록 불안해지 24년이 지난 오늘,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핵(北核)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인질 신세가 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호전성과 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된 국제원 고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다 을 지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인 가운데 라고 있으며,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선제타 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 추진했던 기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추진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했으며, 이듬해 7월 실험을 하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다. 현재 북 규격화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미 양 부는 미국의 핵우산과 더불어, 김제인, 한국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를 맹성(猛省)하고 다시는 전철을 밟지 말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둘째, 북한의 협상전 하지 못했다. 셋째, 중국의 국익과 대북 영, 중국의 6자회담 주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문제 해결이 악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아프 전적으로 매달려야 했고, 북한은 이 상황을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과 약점을 보이고 있다.

간 개선돼야 한국의 숨통이 트인다. 중국은 ·미사일 개발을 강행할 수 있는 여유를 얻 명한 외교는 국민의 단합과 지지를 필요로 맹을 계속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중대사인 중(對中)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 10. 7〉

채널 돌려버려도, 또 ‘먹방’

방 송시평



유 자 효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파리 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한 톨 줍쇼’ 걸식하는
음식 예능까지

스타 셰프들 소금
조미료들 해방시켜

의 로고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히트 시킨 달리에게 오면 요리는 초현실주의 예술이 된다.

인간에게 음식은 어떤 것인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쓴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은 ‘요리는 예술이며 요리사는 예술가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에는 1만 프랑 짜리 한 끼 식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예술 행위이기 때문이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는 요리에 대한 철학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 그냥 하는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천박하다.

TV 스타 셰프의 원조는 영국의 제레미 올리버일 것이다. 그는 요리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그가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도 요즘 우리나라처럼 요리 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다. 그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건강 식단을 제시했다. 그가 학교 급식 개선 운동으로 기사 작위를 받은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우리의 스타 셰프들은 설탕이나 소금, 조미료들을 해방시켰다. 전문가들이 칼로리의 과다섭취를 경고

무분별 먹방이 시청자들에게 야단맞고 있다

돌려도 그곳에서도 또 먹방이었다. 또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먹는 것은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살이 찐 남녀 개그맨들이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경쟁적으로 먹어댄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먹는 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인기를 모으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인지 먹는 것을 희화화하는 것은 혐오감마저 느껴진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먹는 모습은 남에게 잘 보이지 않아 왔었다.

그런데 JTBC는 대형 개그맨 이경규와 강호동을 동원해 숟가락 하나만 들고 무작정 생면부지 가정집을 찾아가 “한 톨 줍쇼”라며 걸식하는 콘셉트의 새로운 ‘음식 예능’을 들고 먹방에 가세했다. 이제는 거지 개념까지 등장하는 먹방의 점입가경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다. 요리는 문화다. 먹는 것은 예절이다. 그런데 요즘 쿡방 먹방에서는 문화도, 예절도 사라지고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어릴 적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미식가이기도 했다. 그는 직접 요리책을 쓰기도 했다.

맛과 쾌락을 위한 음식의 레시피를 저서 ‘특별한 식사(Les Dinners de Gala)’에 담았다. 패렐라다의 분홍색 스파클링 와인을 사랑하고 막대 사탕 츠파츨스(Chupa Chups)

해도 오불관언이다. 다이어트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어떻게 맛있게 만들고, 현란한 몸동작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느냐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듯하다.

스타 셰프 중의 한 명이 전국적인 체인당을 갖고 있는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 그의 이름과 사

진이 붙어 있는 식당에는 인기를 반영하듯 고객들이 넘쳐흘렀다. 그러나 고기류 중심의 메뉴들은 맛은 있지만 건강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있는 식당의 레시피에 그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을까?

한때 신선했던 ‘삼시세끼’도 쇼로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런 식의 조리가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무분별한 우리 TV의 쿡방 먹방도 시청자들의 야단을 맞고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

국내 첫 신문박물관 ‘동아 Presseum’ 한국언론 133년, 오늘도 숨쉬고 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눈 또는 창(窓)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천태만상을 축약해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신문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기자들은 매일 역사의 한 페이지씩을 써 나가는 전문 직업인이다. 오늘 일어난 일을 신속히 전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독자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참고서 내지 교과서로 삼을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 기록들은 쌓이고 쌓여서 살아 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가 21세기를 맞는 2000년에 지금의 21층짜리 광화문 사옥(미디어센터)에 최초의 신문박물관(프레시움, Presseum)을 개관했다. 그 후 2012년 10월 미디어센터 바로 옆의 옛 동아일보 사옥으로 이전했다. 1926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9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31호로서, 1992년까지 66년간 동아일보를 발행했던 곳이다. 이 박물관에 가면 국내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창간(1883년) 이래 한국 신문 133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5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세계의 신문’ 코너가 가장 먼저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21세기 첫날인 2000년 1월 1일자 66종의 전 세계 신문이 전시돼 있다. 이어서 ‘신문의 역사’ 코너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부터 개화기, 식민지 시기, 독재정권 시기 등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를 시대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신문, 근대의 깨우침(1883~1910) △민간신문과 민족의식(1910~1945) △일제 강점의 그늘(1910~1945) △해방공간의 좌우대립(1945~1948) △사실 보도의 승리(1948~1961) △통제와 확장(1961~1972) △언론자유 수호운동(1972~1987) △미디어 산업으로 성장(1987 이후)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일제시대의 항일독립운동과 한글 보급 및 브나르도 운동, 해방후 좌우 이념대립, 독재정권과 민주화 투쟁, 동아일보 백지 광고사태 등에 관한 지면과 자료들이 있다.

그 다음 ‘신문과 사회’ 코너에서는 그동안의 대형 중요 사건 등을 보도한 대표적인 지면과 호외, 기자들의 활동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신문과 문화’ 코너에서는 신문의 활자 및 디자인, 광고, 시사만화, 연재소설과 삽화, 중요 사건 관련사진, 정치인·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들의 캐리커처, 어린이 신문 등의 역사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1994년 7월 사망한 북한 김일성을 실제보다 8년전인 1986년 11월 17일 ‘김일성 피격 사망’이란 제목의

활자, 만화, 연재소설·삽화
각종 자료 보는 재미 쏠쏠

우리 사회 근대사와 현대사
종합적 관점에서 전시·교육

신문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사(過去事)를 나열해 놓은 장(場)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있는 언론의 혼(魂)과 인간 정신, 역사적 교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신문박물관은 인류 문화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육정수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학생들이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신문박물관 견학을 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자 세계 66개 신문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오보를 낸 서울신문 호외도 흥미롭다. 이 자료들은 시대에 따른 각 분야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서 해당분야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1990대 초반 컴퓨터 제작 시스템(CTS) 신문발행체제의 도입으로 폐기된 기존 활판인쇄 윤전기 등 옛 인쇄시설도 자세히 구경할 수 있다. 기자들이 취재 및 사진 촬영, 기사작성, 송고, 국가기관 및 국내외 행사장 출입 등에 사용하던 각종 취재용품들을 전시한 ‘기자의 책상’도 관람객들의 눈을 끈다.

우리나라 언론사에 큰 공적이 있는 주요 언론인 40여 명의 얼굴사진도 소개되어 있다.

Presseum은 동아일보의 역사만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한국 신

문의 역사에 끼친 동아일보의 비중은 매우 크지만 이 박물관은 한국 신문 전체의 시대적 아픔과 변화,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종합적·객관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설 전시실에는 모두 330여점의 각종 자료와 주요 기사 등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돼 있다. 이 외에 전시공간 부족으로 수장고에 보관중인 소장품은 약 4,000점에 이른다. 충분한 전시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Presseum에는 지난 16년간 총 7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명물로 자리잡았다.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단체관람은 물론 가

족단위 관람객도 줄을 잇는다.

6층 미디어 라운지에서는 영상매체를 통해 다양한 신문정보를 습득하고 관람객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은 후 직접 기사 작성과 편집을 해 신문제작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자의 하루’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신문활용교육(NIE)도 받을 수 있다.

미디어 라운지에서는 또 전 세계 약 60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발간되는 100여개 신문의 로고, 발행부수, 발행연도, 발간 도시 인구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작품인 ‘세계신문’을 볼 수 있다.

신문박물관 또는 언론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이다. 1931년 독일 아헨(Aachen)시에 세계 최초의 국제신문박물관이 생긴 이래 미국 워싱턴 중심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뉴지엄(Newseum)이 세워졌고, 일본 요코하마에도 신문박물관이 들어섰다.

아헨의 국제신문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16만 가지의 신문과 17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400년의 신문 역사가 전시돼 있다. 워싱턴의 Newseum은 신문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전반의 역사와 활동상에 대해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 언론박물관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매일 80여 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첫 페이지를 전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사용됐던 방송용 헬기와 위성 수신기까지 천장에 매달아 놓은 뉴지엄은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한다.

또한 뉴지엄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상황을 취재하던 중 사망한 기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전시해 그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있다. 세계 각국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정도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강으로 구별해 색칠한 지도도 인상적이다.

우리나라 신문박물관들은 특히 미국의 언론박물관에 비하면 아직도 초보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실을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게 꾸며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시공간의 확보와 많은 언론사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기술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세계 최강 수명 수소연료전지 개발

두산은 무한한 바람과 수소를 활용한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퓨얼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침 들고 무료봉사 벌써 11년째...

‘사랑의 침구사’ 원로 최대훈 회우

(전 동양·연합·합동통신 기자, 대한일보 LA 특파원)

11년째 매주 수요일 침술 무료봉사를 펴는 ‘사랑의 침구사’ 최대훈 회우를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구청 이웃 노현동 학동빌딩 사무실로 찾아갔다. 지금 오금동 신승교회 장로, 기독교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세계기독교연합봉사회 회장 등으로 교회 신자들에게 침구 봉사를 펴는 최 회우는 81세 고령임에도 볼그스름한 혈색에 안색이 곱다.

글 : 유한준 본회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본회 편집위원

교회 신도 대상으로 봉사

- 침구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 2000년 협심증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뒤에 건강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2005년부터 봉사를 시작했지요. ‘침구계의 큰 별’ 김남수(99세), 장병두(101세) 선생을 포함해 장로, 집사, 권사 등 20명이 뜻을 모아 침구봉사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추대된 이후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꾸준히 펴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거야. 교회 신자들에게 침, 뜸, 부항, 안마 등으로 봉사하지. 침구는 내가 맡고, 나머지 분야는 다른 회원들이 담당하지요.”

‘침구의 명인’으로 유명

- 보람과 희비가 엇갈릴 텐데요.

“내가 좋아서 침구봉사회를 만들고 회원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봉사하는 일이라 즐거움이 넘쳐.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신자들을 보면서 열정이 솟아요. ‘침쟁이 노인’이 아니라 ‘침술의 명인’이라하며 감사하는 신자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사명감이 앞서지. 업혀온 사람이 침을 맞고 걸어갈 때,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웃으며 돌아갈 때 희열을 느끼지요.”

최 회우는 “완전한 가을이 온 것처럼 사람의 몸도 계절을 타면서 경혈이 가끔 고장을 일으켜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쭉신다’, ‘어깨 통증이 심하다’ 등 등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걱정한다.

침구 봉사에 열정을 쏟고 있는 도중에 뜻밖에 사건이 터졌다. ‘무면허로 불법침술 행위를 한다’고 한의사회 측이 강남구청에 항의공문을 제출하면서 일이 터졌다. 6개월간 확인조사가 이어지면서 시달림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회원들은 의사나 한의사처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



즐겁게 침구 봉사를 한다는 ‘사랑의 침구사’ 최대훈 회우.

로 영업적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침구회 회원 모두가 중국침구사 자격증 소지자이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상담하면서 무료로 침을 놓아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1500명에 침구 봉사

- 지금까지 침을 놓아준 사람은?

“침을 맞은 사람은 줄잡아 1500여명은 될 거야. 1인당 1회에 5대 이상 침을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뜸 수 있는 경혈(經穴)이 365개나 돼요.

침을 놓을 때는 경혈을 바로 찾

- 침 값 등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침은 모두 1회용이고 개당 구입 가격은 100원. 월 평균 1000개쯤 소비되는지라, 11년째 사용한 침은 대략 13만개쯤 될 거야. 처음엔 회원들의 회비로 비용을 충당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회원 수는 줄고 환자 수는 증가되면서 비용도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조합 선교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아내(김기원 여사, 약사 출신, 79세)가 도와주지.”

전국 순회 봉사도 실시

- 침구 봉사 일정과 지역은.

“우리 기독교의료소비자 생활협

수요일마다 환자들이 우리 봉사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봉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갑니다.”

- 침구와 뜸질의 효험이라면.

“우리 몸에는 누구에게나 양생능력이 있는데, 일상생활의 습관에 따라 생체기능이 변조를 일으켜서 몸의 이상이 생기죠. 이때 침으로 경혈을 자극하여 생체기능의 변조를 바로 잡고 건강증진을 도와주는 것이죠.”

최 회우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팔, 어깨, 팔목 등에 통증이 생기기 쉽고, 부촌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이, 빈촌 사람들은 위장계통 질환이 많다. 증상에 따라서 침, 뜸으로 효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허리, 엉덩이, 어깨, 무릎 등 관절 계통의 질병은 당연히 전문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늘, 양파, 고구마 꼭 섭취

- 일상의 소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일, 채식, 혼합곡식에 날마다 소량의 마늘, 양파, 고구마를 꼭 섭취하고 밤 9시 취침, 새벽 4시 기상, 가벼운 산책, 태극권 운동을 즐겨요. 술 담배 골프는 No, ‘동의보감’ 등 침구관련 전문서적을 열독하죠. 강원도 고성 민통선 안의 니켈광산권을 2000년 확보한 뒤 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 중인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동작구민으로 22년째 강남구 명예시민 감사관을 맡고 있는 최 회우는 광주 사직동에서 1936년 1월 출생, 돌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성장,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출신으로 영, 불, 독, 러, 중국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하다.

동화통신을 시작으로 동양~연합~합동통신 등에서 ‘외신통’ ‘경제통’으로 필명을 펼쳤고, 대한일보 LA 특파원 등을 거쳐 국회의원들의 회지인 ‘정우(政友)’ 편집인을 역임했다. 슬하에 1남 1녀(미국 거주), 손녀 2명, 외손자 2명이 있다.

침구계 큰별 김남수 선생 등과 봉사회 만들어 시작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 웃으며 돌아갈 때 희열 느껴

고 장기, 혈압 등을 세밀히 파악하면서 정신을 집중해 침을 놓아줘요. 그 때마다 내 몸의 기(氣)가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팔지 등으로 기를 보완하는데 힘써요. 침을 꽂아놓은 뒤 28분 30초 경과 후에 뽑아 줘요.”

동조합 소속 개척교회지요. 서울은 천호동 개척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쯤 끝나지. 지방 순회 봉사도 다녀요.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 대전 대덕, 전북 고창, 전남 완도, 경남 진영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Focus

이달의 보도사진

손형주 기자 ‘먹살 특권’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필립스전자에서 후원하는 제165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에 뉴스1 손형주 기자의 국회에서 벌어진 ‘먹살특권’을 선정했다.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전국 신문 통신사 등 소속 회원 500여 명이 지난 달 취재 보도사진 작품 중에서 인터넷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유쾌한 꼰대씨 송복이 말하는
‘나, 우리, 대한민국’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10월 20일부터 서울신문에 칼럼 ‘나, 우리, 대한민국’을 매주 목요일자에 격주로 연재하고 있다. 송 교수는 최근 저작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끄는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송 교수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가져오는 힘이 과거 산업 사회에서는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서는 사회의 상충부를 구성하는 지도층의 책임 의식, 희생정신과 실천,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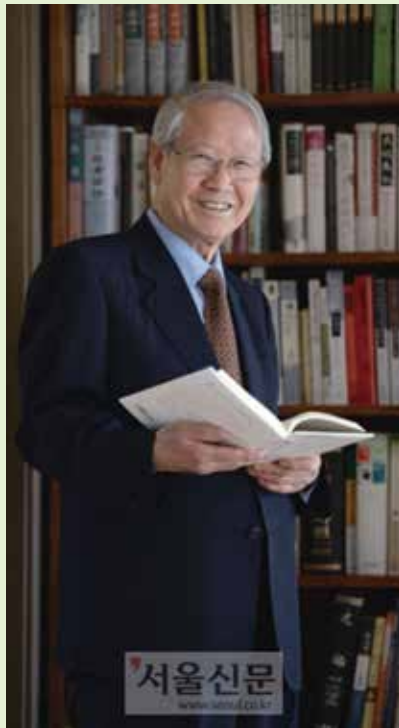
서울신문의 특별기획연재는 첫 회인 ‘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작은 제목의 주제로 이어 나가며 앞으로

로 1년간 연재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일련의 연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상충은 누구이며 급격한 경제발전이 따라 형성된 ‘뉴리치 뉴하인’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들의 특혜와 책임을 따져 그들을 깨우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재는 우리 역사에 있어 한 시대의 부침과 그 사회의 변동과 융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늘 역사와 시대의 리얼리티와 그 속의 진실을 직시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며 독특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송 교수의 연재물이 독자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동아투위 김병익 기자
동아일보 인촌상 수상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고문(전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동아투위) 고문이 인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11일 오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 상금은 1억원.

이 상은 일제침략기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방송기자클럽
‘BJC보도상’ 3편 선정

한국방송기자클럽은 10월 7일 2016년도 3분기 ‘BJC보도상’ 수상작으로 SBS 박상진, 정혜경 기자의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 중금속…알고서도 은폐』 단독보도 등 총 3편을 선정했다.

수상자(작)는 다음과 같다.

〈뉴스 부문〉

△ SBS 박상진, 정혜경 기자 =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 중금속…알고서도 은폐』

△ KBS 최창봉, 노윤정 기자 =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감찰 착수』

〈기획보도 부문〉

△ CBS 김구연, 김기용 기자 = 『화학공화국,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언론의 격 높이는 데 일조”

조선일보 윤리위원회가 10월 14일 오후 위촉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조선일보는 송희영 전(前) 주필 사임 및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독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리위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 박길성 고려대 대학원장,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 5명과 조선일보 내부 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윤리위는 조선일보의 취재 보도와 직업윤리에 관한 기자 준칙 등을 보강하고 관련 규정 심의와 더불어 언론 윤리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폭넓은 심의와 자문에 응해 나갈 계획이다.

14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윤리위 활동을 통해 한국 언론의 격(格)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며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비판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지도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제2의 도약 선언



창간 7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경향신문 임직원들은 독자와 시민을 향한 ‘열린 미디어’를 지향하면서도 진실·공정 보도와 자유·정의·인권 수호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0월 6일 창간 70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 1000여명을 초청해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경향 70년 진실을 읽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갖고, 이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본회 문화탐방

공주의 흰 드레스처럼 단아한 公州

젖줄 금강을 품에 안고 남북으로 갈라진 충남 공주 시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다. 어디가나 휴지통이 없는데도 담배꽂초 하나 버려진 곳이 없이 온 도시가 청결하다.

지난 10월 11일, 예정보다 20분 늦게 3대의 버스를 채운 채 떠난 우리 언론인회 회원들은 맑은 가을 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소풍가는 기분으로 떠돌고 있었다. 보이는 주변 산에는 벌써 노랗게 물든 단풍들도 보였다.



이향숙

본회 상임이사겸사무총장
전 헤럴드경제 문화부장

秋香에 담긴 백제의 습결

2016년 10월 공주 문화탐방

유한준(본회 편집위원)

秋香에 곱게 물든 백제 古都 고마나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너른 품 찾은
대한언론인회 원로 언론인 120여명
백제 역사 둘러 본 문화탐방 나들이길
마음도 발걸음도 상쾌한 하루였어라.

금서루 구절초의 백옥 향기 미소
백제문화 더듬어 간 공산성 성벽 돌레길
비단물결 천리 휘돌아 감싼 공주 금강엔
웅진천도 기린 475척 황포돛배 등실등실
고대왕국 찬란한 향취 가슴으로 느꼈네.

백제의 혼백 되살린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과 왕비 잠든 돌방무덤 유물 4600여점
배일의 역사 살펴 본 즐거운 나들이길
정교한 문화유산에 취한 정겨운 얼굴들.

태화산 송림 仙境의 천년고찰 마곡사
법구경 드리운 굽은 길 따라
자비와 평온 발원하는 極樂橋 건너
세조의 사액 '靈山殿' 천불의 미소 보듬고
'내가 가는 길 뒷사람의 이정표 되리라'
백범의 유훈 입산수도 명상 되새겨 본 길.

무상세월 춘추필설 정론 펴온 원로 논객들
솔바람 추풍 고즈넉함에 젖어들어
5층석탑 自我도량 대웅보전에 佛心 담고
생로병사 정담 뿌려놓은 하루였어라.

오랜만에 만난 옆자리의 회우들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가다 급세 정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휴게소에서 정차한 차에서 내리는데 옆에 주차한 버스의 앞 창에 'xx 고교 2학년 6반'이라는 전광판 글씨가 눈에 확 띄었다. 내 모교 후배들의 수학여행 차량이 분명했다. 나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조금 기다렸다가 차에 올라서 "나도 너희처럼 53년 전 수학여행간 선배다. 반갑다!"고 인사했다. 지금은 전직 기자들과 공주 가는 길이라고 덧붙이니 대선배를 만났다고 답임선생과 후배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순간 그 옛날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차는 다시 달려 제일 먼저 공산성 입구에 닿았다. 한적한 동네인 산성동에 위치한 산성인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런 곳이다. 원래

들어갔다. 입구에는 "단체 예약이 있어 일반인은 오늘 받지 않습니다..." 하고 써붙여 있다. 우리가 전세 낸 식당이었다.

차려진 메뉴는 우렁된장 정식. 할머니가 37년째 매일 청정수 금강에서 건진 싱싱한 우렁을 듬뿍 넣어 토종된장에 넣고 끓인 찌개와 우렁 무침 등 15가지 반찬을 섞어 비빔밥으로 먹는 정식인데, 구수한 냄새가 입맛을 돋우었다.

식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령왕릉을 포함한 송산리 고분군에 닿았다. 모두 6기의 고분이 모여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고분들을 발견한 사람이 일제시대에 일본인 도굴꾼들이었다. 이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확인된 사람이 무령왕으로, 백제를 중흥시킨 주인공이다. 그의 유품과 초상화, 무덤 내부 모형이 인근 고분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무령왕

세월과 강이 함께 흐르는 백제 옛 도읍지 추향 가득



백제 5대에 걸친 왕족이 살았던 공산성 앞에서. 사진 = 이철영 편집위원.

는 백제의 도읍지 웅진성으로 불렸고, 일반 다른 성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었으나 공산성은 방어보다는 5대 64년에 걸쳐 왕과 왕족이 살던 왕궁 터였다고 해설사가 설명했다. 이 성의 길이는 2,660m. 계단을 조금 올라 공산성 정상에 오르니 넓고 수심이 얕아 보이는 금강이 유유히 천천히 흐르고 있다. 산성 주변에는 희고 깨끗한 구절초가 무리지어 흐드러지게 피어있으면서 하늘하늘 군무를 추고 있었다. 구절초는 공주시내 곳곳 길가에도 피어 있는데 공주 시의 빛깔은 저 깔깔한 흰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옛 백제 터에는 세계문화유산이 8곳 지정돼 있는데 그 중 2곳이 공주 땅이다. 금강 방향에서 시선을 10시 방향으로 돌리니 건너편 언덕에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이 보인다. 공산성에서 차로 3분 거리인데, 공산성에 살던 왕과 왕족이 죽은 후에 묻힌 고분군이다.

공산성에서 내려와 바로 건너편 토속식당으로

통임이 발굴, 확인된 과정도 재미 있다. 그 위의 다른 무덤 쪽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고분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공사를 하느라고 일부를 파헤친 중에 무덤 속에서 무령왕 무덤임을 알려주는 지식과 부장품을 발견했다. 그 외 다른 5기의 고분들에 묻힌 주인공들은 왕족으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령왕릉에서 출발한 차는 이어서 마곡사로 향했다. 마곡사는 640년 신라 선덕여왕 때 지은 고찰이다. 1400년 고찰답게 주요 전각의 단청이 모두 벗겨져 고풍스러운 멋을 드러내고 있고, 좀 늦게 지은 전각만이 희미하게 단청이 남아 있다. 김구 선생이 일제말에 일본헌병 장교를 살해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중에 극적으로 탈출해 머리 깎고 승려가 되어 6개월간 마곡사에 숨어 살던 작은 기와지붕의 건물이 남아 있다. 김구 선생의 사진과 서산대사가 써주었다는 시 한 수가 적혀 있다.

절 대부분 건물과 석탑이 보물 또는 사보(寺寶)로 지정돼 있다. 2018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될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마곡사 대광보전(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곳) 앞 마당에는 자주 노랑의 국화가 가득 피어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마곡사 주차장에서 절 마당까지는 도보로 30여분 걸리는데 우리는 사전에 절 주지스님에게 공문을 보내 우리 일행은 원로 언론인들이라 설명하고 절 마당에 주차하도록 허가를 구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마당에서 내려 별로 걷지 않고 절 경내를 볼 수 있었다.

마곡사를 마지막으로 유적지 방문은 끝내고 저녁 식사가 기다리는 신갈 한국관 식당으로 향했다. 한 상 거하게 차려진 불고기와 찜닭, 잡채 등 고급 한정식에 소주와 막걸리로 흥을 돋우면서 쌓인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식후에 마당에서 원두커피를 마시고 차에 올라 서울로 달리고 또 달려서 죽전 정류장에서 일부는 내리고 출발점에 오후 8시 정각에 도착했다. 귀가 길에 오른 회우들은 모두 피로한 기색 없이 밝고 유쾌한 모습이었다.

대한언론인회의 문화탐방 테마는 먹거리, 볼거리, 걷는 거리 등 3대거리를 만족시켜주는 게 현 집행부의 방침이다. 맛있는 음식과 맑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다리에 부담주지 않고 걷는 거리가 짧게 줄이는 곳을 선택하여 즐겁고 편한 탐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의 공주 탐방도 그런 만족한 추억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탐방을 지원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수고한 진행요원들, 그리고 협조해주신 회우들에게 감사한다.〉

회우들이 펴낸 신간

영광과 오욕...한국 의정사 30년

이 형 지음



이형 본회 원로회우가 '한국 의정사 30년' 역저를 발간했다. 이 책은 1948년 5·10선거에 의해 탄생된 제헌국회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1980년 5월 24일 끝난 제10대 국회까지 30년 의정사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

여 590페이지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첫 장은 지난 48년 5·10선거가 이른바 4·3사건으로 치안이 불안했던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를 뺀 198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른 뒤 5월 31일 개원하여 이승만 박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과정 등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수립과정을 첫 장부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서술을 1부와 2부로 크게 나눴는데 1부는 제헌국회에서 5대 국회까지 13년을 국회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2부는 6대부터 10대까지 17년을 사실상 행정부의 시종노릇을 한 국회답지않은 국회였다는 전제 아래 그 시기의 정치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의정사를 다루었다.

시대별로 다룬 내용들을 보면 제2대 국회에서는 피란 국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비, 부산 정치파동, 발췌개헌안, 제2대 대통령·3대 부통령 선거, 족청과 몰락, 그리고 5·20총선을 다뤘고 제3대 국회에서는 사사오입 개헌, 민주당 창당, 5·15정부통령 선거, 민의원 데모, 언론의 수난, 장면 부통령 피격, 정치깡패 탄생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제4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신·구파 대립, 24파동, 3·15선거, 4·19혁명과 이 대통령 하야, 그리고 과도정부수립과 내각제 개헌을 마지막으로 다루었다.

이 책의 1부 마지막인 5대 국회가 던지는 문제는 시사점이 많다. 처음 기술한 7·29총선 민주당 분당란에서 시작하여 민주당 신·구파의 결렬과정까지 국리민복과는 거리가 먼 끝없는

계파별 이해득실에 따른 국론 분열과 집단시위에서 오는 사회혼란 등을 읽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

55년 전 우리나라가 어찌면 오늘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5·16이 초래됐음을 이 책은 사실로서 증거하고 있다. 5·16으로 군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국회의 역할은 과거와 차별화된다.

저자는 '국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어 국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행정부의 뜻을 받들어주는 국회를 과연 국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스런 그런 국회'였다고 서슴없이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국회라는 이름은 존재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제6대 국회에서는 6·3사태, 한·일회담, 월남파병, 그리고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 등 언론파동을 주요내용으로 취급하고 7대 국회에서는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1·21사태와 윤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비롯해 삼선개헌을 다루고 제8대 국회에서는 4차까지 이어지는 사법파동을 비롯해 7·4공동성명, 국가비상사태선언, 그리고 기업의 사재를 동결하는 8·3조치를 기술하였다.

제8대와 제9대 국회 사이에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를 다뤘고, 제9대 국회에서는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동아일보 백지 광고사태, 그리고 3·1민주구국선언 등을 담았고 마지막 제10대 국회에서는 YH사건과 김영삼 의원의 제명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다루면서 박 대통령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도 민심의 이반과 시대사회의 큰 물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저자는 우리의 의정사를 돌이켜 보면서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법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리고 군에 의한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끝을 맺었다. 한국 정치사의 자료 가치로서도 이 책의 출판은 의미가 크다.

청이출판사 간행 · 590쪽 · 값 30,000원

감명깊게 읽은 책

29세 청년 이승만이 쓴『독립정신』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나의 일신과 부모처자와 형제자매며 자손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리오.”

위 글은 1904년 6월 29일 감옥에 있는 29세의 청년이 쓴『독립정신』이라는 제목의 책 첫 구절이다. 기우는 국운(國運)을 보다 못해 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며 공화제(共和制)를 주창하다 잡혀 한성감옥에 투옥된 지 6년째 되는 해 청년 우남 이승만은 불후의 명작『독립정신』을 썼던 것.

그의 이 책 첫 대목은 지금도 그대로 진리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는 풍전등화 격이다. 그때는 일본이라는 외세가 우리 국권을 찬탈하려 했고, 지금은 동족이 가 공할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두 경우 다 국민 특히 지도급의 확고한 국가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국민이나 지도층에게는 국가관은 없고 제각기 제살 궁리만을 했다. 청년 이승만은 이를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독립정신』을 썼고 그 모두에 “국가가 없으면 집(개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호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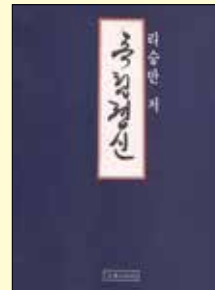
이는 바이마르공화국의 아나키현상을 보고 국민에게 일갈(一喝), 각성을 촉구한 피히테의『독일국민에게 고함』에 비견되는 명문이다.

지금 읽어도 가슴에 와 닿는다

이승만은『독립정신』에서 국민 각자의 독립정신을 일깨우면서, 특히 책임과 자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라가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면 각자가 제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라를 반드시 화를 면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백성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렇듯 그는 내우(內憂)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의 각축과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승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외환(外患)을 예견하는 국제적인 안목이 남다른 밝히고 있다. 그가 굳이 한글로 쓴 이유로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여 1,200매가 넘는『독립정신』은 1904년 2월 19일 집필을 시작, 6월 29일 불과 석달 열흘만인 6월 29일 탈고했다 한다. 본인 말마따나 “옥중에서 몰래 쓰다가 중단도 하고 감추기도 하며... 자료도 부족하여(머릿말)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핵심은『독립정신』 두 글자”이다. 1세기 이상 지난 지금 읽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와 닿고 공감할 진리가 듬뿍 담긴 책이다.



이도형

본회 상임역
전 한국노단 발행인

孝주제 思親文學 창간

권혁승 편저

효사상을 주제로 한 문학잡지 “思親文學”이 창간되었다.

원로언론인 권혁승 백교문학회 회장은 10월 7일 효사상을 함양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사재(私財)를 들여 확장한 사모정(思母亭)공원 확장 준공 및 헌정식에 맞춰 간행한 “思親文學” 창간 축하식을 제7회 백교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거행했다.

권혁승 회장은 이날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孝鄉 江陵’이라고 새긴 대형 오석조형물과 모자상(母子象) 오석비 제막식에 이어 확장한 공원을 강릉시에 기증하는 헌정패를 최명희 강릉시장에게 전달했다. 권 회장은 사모정 정자를 지어 강릉시에 기증한지 9년만에 오석조형물을 설치하여 헌정하게 된 것이다. 제7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에서는 김관식 시인의 시「어머니의 키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조선의 시인「주름의 변곡점」, 최현숙 수필가의「아버지의 일기」, 이용희 수필가의「초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백교문학회 간행 · 309쪽 · 값 15,000원



民世後踏

김진현 저

민세 안재홍 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인 저자가 편집한 안재홍 관련 논설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한 내용을 모아 정리했다.

안재홍(安在鴻, 1891년 12월 30일 ~ 1965년 3월 1일) 선생은 한국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언론인, 역사가, 만화가이다. 호는 민세(民世).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 출생.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활동한 조만식과 함께 몇 안 되는 중도우파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신간회 창립에 간여했으며, 해방 후 여운형, 김규식, 조만식 등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했으나 6·25전쟁 중 납북되었다.

저자 김진현 회우는 문화일보 회장, 과거처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민세 기념사업과 신간회 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하면서 민세 학술대회와 추도식, 기념 시상식의 축사, 기념사를 모아 엮은 책이다.

사민세 안재홍 선생기념사업회 간행. 123쪽. 비매품



회우동정

사무실 청진동 이전



조규만 (전 한국경제) : 서울보증보험 대륜대리점 대표인 회우는 최근 세종로 지점 사무실을 청진동으로 옮겼다. 새 전화 783-0500 핸드폰 010-6287-0103



무실을 최근 프레스센터 뒤 무교동 건설근로자공제회관 701호실에 오픈했다. 박 회우는 작년 8월 계간지 '재외동포저널'을 창간했으며 2호는 아직 준비 중이다.

도쿄 고향의 집 준공 참석



제재형 (본회 고문·전 한국일보), 이억순

(전 세계일보) : 10월 17일 일본 동경에 신축된 실버타운 '고향의집 도쿄' 준공식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 건물은 한국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는 일본인 윤학자 여사를 기리는 공생복지재단(이사장 윤기)이 360억을 모금하여 지은 건물로 800평 대지에 5층 건물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아들 결혼 축의금 이웃돕기



김용발 : (인터넷신문 메디팜헬스 대표) : 지난 9월 24일 외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일부로 쌀 160Kg을 사서 거주지 관할 송파구청에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고 기탁했다.

연락 사무실 오픈

박기병 (본회 상담역) : 재외동포저널, 6·25참전언론인회 연락처 사

명복을 빕니다

이재원 형 영전에

정구호 (본회 회우)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오던李형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정말 괜찮은 친구 하나가 사라졌구나!”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젊을 때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았지요. 서울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정치부에서 기자 생활을 했지만 절대로 재주를 부린대거나 하는 일 없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상사로부터 크게 신뢰받는 기자였지요. 언론계 생활 20여년을 끝내고

관계로 진출해서도 성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무장관실 차관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한 사람의 기둥이었습니

다. 게다가 언론계·관계를 지나 학계에까지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대학교수로 나가서도 언론과 관계에서 닦은 지식이라 학생들로부터 명강의를 해주신다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 다 끝내고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고 나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깝게 돌아가셨군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 잊으시고 편히 쉬세요.

제6회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 성황

이병대 회장을 비롯, 대한언론인회 윤익한, 한기호 상담역, 이향숙 사무총장은 지난 달 22일 오후 원주에서 있는 제6회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날 수상한 케냐 출신 '옹구기와 시옹오' 작가는 “문명의 산소역할을 하는 언어 및 문화의 교류”란 제하의 연설을 한 뒤 대한언론인회 임원진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본회 윤익한 상담역, 이향숙 사무총장, 이병대 회장, 수상자 부인, 수상자 옹구기와 시옹오, 한기호 상담역.

언론가 소식

제6회 재외동포언론인 심포지엄

대한언론인회와 재외 한인 언론인회가 공동 주최한 제6회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 연사는 동국대 이호규 교수로 “해외 한인 언론들의 역할과 한국 공동체 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730만 해외동포의 여론을 주도하는 재외 한인 언론인회는 15개국 30개 언론사에서 40여명이 참가, 전일 전야제를 겸한 만찬회부터 세미나와 양평·연천 등에서 4박5일간 일정으로 “재외동포 언론

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안”을 논의했다.

본회, 춘천 전승행사 참관

대한언론인회 산하 6·25 참전언론인회 회원 및 일반 회원 19명은 지난 10월 8일 국방부 초청으로 춘천전승기념행사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오찬과 기념식, 전투 장면 재현 등을 참관했다.

춘천은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과 학도병이 용감하게 적에 맞서서 3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사우회 소식

청계산서 추계 산행

헤럴드

추계 산행을 지난 10월 15일 청계산에서 가졌다. 코리아 헤럴드와 헤럴드 경제 등 헤럴드 미디어 출신 회원 40명이 참가했다.

매년 봄가을 열리는 청계산 산행은 회원 단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산 후에는 소담채에서 백숙을 점심으로 들고 기념품도 나눠주었다. 윤익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다려지는 산행, 기다려지는 사우회 모임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화관련자료 기증

서울신문

전 문화부 영화담당 기자로, 영화제작자,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활동했던 호현찬 회우가 평생 모은 영화 관련 자료와 자신의 칼럼 및 저서 등

영화 관련 자료 일체를 사우회에 기증했다. 이 중에 저서 『한국영화 100년』은 우리나라 산 영화사라고 할 수 있는 역작이다.

창립 3주년 특집회보

한경

창립 3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회보 1면 특집으로 다뤘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9월 5일 한강 유람선에서 야유회 겸 기념식을 가졌다. 참석한 80명은 유람선을 타고 본사가 보이는 여의도를 거쳐 한강 일대를 유람했다. 이 기념식에 본사 윤세영 회장은 축하 메시지와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 주소 변경 ▶

박우정 회우 =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74 현대테라하임아파트 102동 602호

민병일 회우 = 서울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아파트 604동 1101호

구월환 회우 = 이메일 kwh2009@hanmail.net

입회비·연회비 내주신 분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6. 9.28 ~ 10.20)

유용현(16) 최종수(17,18)

지정식(16,17) 최영대(17~19)

▶ 회비 미납 회원님들은 속히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우 경조사 ◀

결혼

박진환 회우 = 10월 23일 오후 1시 10분 아들 우람 군 결혼.

부음

최병요 회우 = 부인상 10월 21일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주필 林鍾乾
- 편집위원장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술유라 품질유라

‘미래자동차의 최전선’ 유라가 맡고 있습니다.



Wiring Harness



ICU (Integrated Central Control Unit)



High Voltage Junction Block



High Voltage Cable



HEV Connector



Fast Charging Interface



지역서점 포털사이트

지역서점이
뭉쳤습니다!



가까운 서점으로 GO! GO!

- 전국 서점 명단,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에~
- 내 주변 서점의 실시간 재고 현황, 지역서점의 행사, 이벤트 정보



도서정보가 한 눈에~

- 도서 검색은 기본, 중소출판사의 신간 정보까지
- 지역서점만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분야별 베스트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간의 의견교환이나 도서정보 교류
- 스크랩기능으로 내게 맞는 도서정보나 행사 이벤트 정보 조회
- 저자와의 대화 코너를 통해 저자와의 생각 공유



지역서점 활성화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